심포지엄

한국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역사와 소송의 의미

일시 | 2018년 5월 28일(월) 오후 2시~6시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2연수실

주최 |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여백)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심포지엄]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역사와 소송의 의미

- 일시: 5월 28일(월) 오후 2시~6시
-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2연수실
- 주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 문의: 두레방(031-841-2609)
- 후원: PeaceWomen across Globe

PeaceWomen Across the Globe
FRIEDENSFRAUEN WELTWEIT
نساء من أجل السلام عبر العالم
Femmes de Paix Autour du Monde
Женщины мира за мир на земле
MUJERES DE PAZ EN EL MUNDO
Mulheres pela Paz ao redor do Mundo
DONNE DI PACE NEL MONDO
ピースウーマン―国境を越え平和をつくる女たち
全球和平妇女

▮ 심포지엄 순서

사회 - 고유경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운영위원)

인사말 - 유영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1부 (14:10~15:45)

- 신세타령에서부터 비판적 의식과 여성주의 실천에 이르는
  : 기지촌 여성을 위한 정의
  - 마고 오카자와-레이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명예교수)
- 현장의 목소리 - 김태정(두레방 활동가)
  - 박영자(두레방. 소송 원고)
  - 유인경(햇살사회복지회 간사)
  - ㅇㅇ숙(햇살사회복지회. 소송 원고)

휴식 (3:45~4:00)

2부 (16:00~18:00)

- 기지촌 '미군 위안부' 판결의 의미와 과제
  -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건강한 병사(와 '위안부') 만들기: 주한미군 성병통제의 젠더/생명 정치
  - 박정미 (충북대 사회학과)
- 미군 기지촌 '위안부' 운동과 당사자 '증언'의 의미: 포스트식민 서발턴의 사회적 형상화와 초국적 여성 연대 -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 종합토론

▮글 싣는 순서

• 인사말: '심포지엄'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잔치상 … 6
유영임

• 신세타령에서부터 비판적 의식과 여성주의 실천에 이르는 … 9
: 기지촌 여성을 위한 정의
마고 오카나와-레이

• 두레방, 언니들, 그리고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 17
김태정

• 꼭 알리고 싶다. … 24
박영자

• 햇살할머니들과 함께 하며 … 29
유인경

• 저는 햇살사회복지회 회원입니다. … 35
ㅇㅇ숙

• 기지촌 '미군 위안부' 판결의 의미와 과제 … 38
하주희

• 건강한 병사(와 '위안부') 만들기 … 54
: 주한미군 성병통제의 젠더/생명 정치
박정미

• 미군 기지촌 '위안부' 운동과 당사자 '증언'의 의미 … 70
: 포스트식민 서발턴의 사회적 형상화와 초국적 여성 연대
이나영

인사말

'심포지엄'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잔치상

유영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화려한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지는 못하지만 이 심포지엄은 기지촌 여성 운동을 하는 저희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조발제를 해주시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오신 마고 오카자와-레이 선생님은 저희들 모두의 큰 스승이라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군사주의'라는 어렵고도 뿌리깊은 구조악을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을 가르쳐주시고 이의 제거를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실천적 토대를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겸손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고 선생은 우리가 동료 활동가로서 커오기까지 20여년간 등 뒤에서 기다리셨고 우리를 빨리 가라고 등떠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발제 제목만으로도 심장이 쿵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세 분 모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이나영 교수님은 오랫동안 물과 기름처럼 학문과 실천이 묘하게 분리된 채 움직이는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이 현장의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지를 몸소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학문이 약자를 대변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학문이 된다는 것을 실천해주셨고 늘 우리의 현장활동을 지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박정미 교수님은 가장 늦게까지 근대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던 한국의 성매매 정책을 법률적 측면에서 연구해오셨고 성매매의 뿌리가 일제시대 이후 미군사정권을 거치고 한국전쟁을 거치는 기나긴 과정을 연구하시면서 우리의 성매매 정책을 연구해왔고, 이번 기지촌 재판과정에서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찾아내고 제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셨습니다.

게다가 두 분 교수님은 직접 재판의 증인으로 서 주심으로써 판결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주희 변호사님은 이 재판이 승소할 수 있도록 무료변론해 줄 젊고 양식있는 변호사님들을 조직하고 법리해석이 가능하도록 수년간 노력하셨고 사실상 승소판결을 얻어내셨습니다. 다시한번 무료변론을 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생존자로서 증언을 해주신 햇살사회복지회의 ㅇㅇ숙 선생님, 두레방의 박영자 선생님 두 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사자의 증언이 없이는 위에 열거한 모든 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아팠던 삶을 대중앞에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인지 잘 알기에 매번 아픈 상처를 드러내면서 동료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께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다가서서 아픔을 같이 하고 힘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활동가 김태정, 유인경 두 분의 헌신과 인내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으로서의 쓰임새가 생기듯이, 이 각각의 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실무적으로 엮어내는 일은 또다른 전문영역에 속합니다. 이 또한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고유경 선생님이 우리들을 독려하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번째로는 통역을 맡아주신 장보람 변호사님, 김조이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심포지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신 분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던 '군사주의'라는 이름의 반인권적인 활동이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활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심포지엄에 예산을 지원해주신 PeaceWomen Across the Globe 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은 사실상 2012년 8월 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결성되고 2014년 6월 25일 재판을 시작한 지 3년 7개월만에 비로소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력했던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든 '심포지엄'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잔치상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의 잔치상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깊이 사랑합니다.

신세타령에서부터 비판적 의식과 여성주의 실천에 이르는: 기지촌 여성을 위한 정의

마고 오카자와-레이[1]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명예교수)

2018년 5월 28일

오늘 저는 미국의 "진정한 안보를 위한 여성들(Women for Genuine Security)"과 스위스의 "PeaceWomen across Globe"를 대신하여,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데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무척 영광이라는 인사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역사적인 심포지엄을 조직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특별히 두레방을 설립한 분들과 이끌어오신 분들, 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두레방은 기지촌 여성과 미군 아버지가 버린 다인종(mixed-race) 아동의 실태를 처음으로 드러낸 이들로,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간성을 확고히 했으며, 그들도 타인의 수용과 무관하게 한국 사회에서 기본권과 존엄성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두레방

1) 마고 오카자와-레이 박사는 필딩 대학원대학 리더십 연구과정의 교수이며,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명예교수이다. 1994년부터 군사주의와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활동해오고 있다. 한국, 오키나와, 괌,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일본, 미국 등에서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국제 네트워크를 만든 창립한 사람들 중 한 명이다. 1997년 한국의 다인종(mixed-race) 아동 실태에 대한 첫 조사 논문 중 하나인 "GI타운의 아메라시안 아이들: 미국 군사주의의 유산" 를 을 여성학 아시아 저널에 발표했다. 그녀는 한국 자매들을 무척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현재의 역사적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과 새움터, 햇살센터, 개인 지지자들이 연대하여 군사화된 성매매에 국가가 공모했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먼저 페미니스트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기지촌 여성의 실태를 접하게 된 개인적인 계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1994년 봄과 여름은 제가 미국 시민이자 페미니스트 연구 활동가로서 심오한 깨달음을 얻은 시기입니다. 풀브라이트 연구과정을 진행하던 저는 한국에 100여개의 미군 기지와 시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는 사실과, 기지 주변에 군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진" 술과 섹스, 의복, 신발, 패스트푸드, 선물-기지 주변의 여성들은 가발과 긴머리도 요구되었음-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군 기지 주변의 기지촌(제가 나중에 알게 된 한국말)에 대해 처음에 저는 개인 또는 가족 기업들로 이 곳이 운영된다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정부와 미 국방부, 특별히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의 지원 아래에 기지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군사회된 성매매와 "유흥"사업의 경우 그러했으며, 군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성병 감염 검사와 같은 공식적인 보건 요구사항들을 여성들이 갖추도록 했습니다.

조사 연구를 하는 동안 한국 여성들이 기지촌에서의 삶과 다인종(mixed-race) 아동의 삶을 나누고자 제게 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진지하고 깊이있게 (통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기지촌 여성으로서 최초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증언했던 송탄의 김연자는 처음으로 제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여러 지역에 저를 데리고 다니며 기지촌 여성들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제게 기지촌을 알려주고 가끔 저와 동행했던 페미니스트 작가인 안일순 선생님은 여성들이 그녀의 "어둠의 이야기들"을 제게 들려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군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에 대한 논물을 쓴 한국 교수가 제게 신세타령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들 속에 담긴 감정과 영성과 역사성의 맥락들의 복합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의 레벨에서 이해했는데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레방이나 새움터, 햇살센터의 자매들은 수십년간 여성들과 생존자들, 아이들을 지원하면서 수백번 반복하여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듣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들은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기지촌 여성들의 이야기가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와 일본제국군의 '위안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 정부와 미군, "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에 대한 문화적

기대와 평가, 남성성의 구축, 한국 상품의 국제적 수요에 부응하려고 만든 공장들과 사업의 조직, 군사주의와 미군기지와 자본주의와의 관계 등에 연관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 활동가들은 기지촌 여성들의 삶과 계급적 배경, 청소년기 가족 구성원의 성폭력 경험 등과 기지촌에서의 그들의 활동과의 근원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적 인식을 발전시켰고 한국 전쟁 이후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국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들을 이용했던 한국 정부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정의를 향해 걷는 세 번째 여정은, 어려운 작업이며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의 페미니스트 실천(성찰적 행동)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제도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성찰에 기초하여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을 일하면서 투쟁해왔습니다. 투쟁은 수십년동안 진행되었고, 2월 법원의 판결로 그들의 투쟁이 옳은 것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적인 승리는 또한 "할머니"와 "언니"들의 용기를 바탕으로 이뤄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사, 청중들을 향해 그들의 경험과 고통을 직접 이야기했고 언론 앞에도 나섰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용감하고, 지혜로운 두레방의 박영자 언니는 그녀가 겪은 일과 고통에 대해 공개법정에서 위엄있게 진술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분명하고 강한 목소리로 그녀는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판사를 포함한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그녀는 언론 앞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술한 다른 여성도 있습니다. 햇살센터의 김숙자와 같은 할머니들은 연극, 뮤지컬, 합창 등 많은 공연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승리를 뒤이어 한반도에서는 가족과 민족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지촌 여성의 삶을 위한 투쟁에서 미국과 미국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세타령에서부터 비판적 인식과 페미니스트 실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다음 단계는 미국 활동가들이 한국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군사화된 성매매를 실시하고 유지해온 데 미국의 역할을 묻는 소송을 미국 법정에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화된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결과 한국의 경제보다 필리핀의 경제가

더 열악하고, 필리핀 여성들의 노동도 한국 여성들보다 더 열악해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기지촌 여성들의 다수는 필리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기지촌 이슈는 한국과 한국 여성의 문제보다 더 커지고 있으며, 투쟁은 과거보다 더 초국가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기지촌 이슈에 초점을 두는 것 이상으로 우리 미국 페미니스트들은 우리의 끔찍한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데 책임을 갖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와 제 동지들은 한반도가 군사훈련이나 기지, 무기, 군인들이 없는 비군사화 지역으로 선포되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그 대신, 한반도의 민중들은 오키나와, 필리핀, 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진정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든 생명체를 응원하는 건강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From *Shinsaetaryoung* to Critical Consciousness to Feminist Praxis: Justice for Kijichon Women”

Margo Okazawa-Rey [2)]
Professor Emerita,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2018 May 28

I bring greetings today on behalf of Women for Genuine Security in the USA and PeaceWomen across Globe in Switzerland to help recognize and honor the work that has led us to this symposium.

Deepest appreciations for the organizers of this historic symposium and for allowing me to participate. I am grateful and honored. I especially want to thank the founders, staff, and leaders of Du Re Bang who were among the first to recognize the situation of kijichon women and their mixed-race children abandoned by US military fathers and did something extraordinary: affirmed their humanity and showed they are part of Korean society with basic human rights and dignity, regardless whether anyone else accepts that. This symposium celebrates Du Re Bang and the coalition of NGOS including Sae Woom Tuh and Sunlit Center, and individual supporters whose activism and community-organizing led to victorious verdict in the Korean court that ruled government complicity in militarized prostitution.

I will begin with my own personal connection as a feminist researcher and

2) Dr Margo Okazawa-Rey is professor in the School of Leadership Studies, Fielding Graduate University, and Professor Emerita at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Since 1994, she has been working on the issue of militarism and impacts on women. She is a co-founder of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that includes members from Korea, Okinawa, Guam, Hawaii, Puerto Rico, Japan, and US. In 1997, she published one of the first research papers about the situation of mixed-race Korean children, “Amerasian Children of GI Town: Legacy of US Militarism“ in the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She describes herself as deeply loving her Korean Sisters, loving life, and being alive in the current historical moment.

activist to the situation of kijichon women. Spring and summer of 1994 was a time of profound awakening for me as US citizen, feminist academic activist. While conducting my Fulbright Researcher study, I discovered that nearly 100 US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existed across South Korea and that, surrounding the bases, businesses were established to service what military personnel "needed": alcohol, sex, clothes, shoes, fast foods, souvenirs; the military women needed even wigs and long hair. The kijichon (the Korean word I later learned) around US military bases, I learned were operated by individual and family entrepreneurs BUT existed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US Department of Defense, specifically Asia Pacific Command. This was/is particularly so in the case of militarized prostitution and the "entertainment" industry, with is official health requirements imposed on kijichon women such as tests for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primarily to protect servicemen.

Doing the research, I listened very carefully and deeply to Korean women (through interpreters mostly) who shared their moving stories of being in kijichon and about the lives of their mixed-race children, if they were mothers. Kim Yon Ja, of Songtan, one of the first kijichon woman to speak publicly about the issues was the first woman who shared her story and accompanied me to many places in Korea to listen to women's and children's stories. Ahn Il Soon feminist writer sunsangnim, who introduced me to kijichon in the first place and accompanied me sometimes, said the women were telling me their "darkness stories"; later a Korean Professor who had done his dissertation on Korean women married to servicemen, taught me the concept of shinsaetaryoung. I came to understand the complex emotional, spiritual, historical threads in the stories I was privileged to have been told. I understood at the individual level but needed deeper understanding.

The sisters of Du Re Bang, and in the newer organizations like Sae Woom Tuh and Sunlit Center, heard the stories hundreds and hundreds and hundreds of times over the many decades as they supported the women, the survivors, and

their children. But they also had to do more than listen. They had to study and analyze critically and come to understand all the ways the women's stories were connected to history of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and "comfort women" system of Japanese Imperial Army; to Korean government and US military; to cultural expectations and judgments about "good woman" and "bad woman"; to constructions of masculinity; to organization of work and factories established to serve global demands for Korean goods; an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ism, US bases, and capitalism. Over the years, and through numerous experiences, the activists developed the critical consciousness required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relationship between kijichon women's lives, their class backgrounds, and experiences of childhood incest, for example, and their work in kijichons, to Korean government's intention to exploit the women to build the national economy and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the US after the Korean War.

The third part of the journey toward justice for kijichon required hard work and feminist praxis—action with reflection—of feminist activists organized to hold the government accountable and create institutional change. They acted then reflected on their actions. They worked and struggled; the struggles have been decades long, but the February Court ruling affirmed the correctness of their struggle.

The legal success was also built on the courage of "halmoeney" and "eunni" who spoke about their experiences and hardships directly to the judges, lawyers, people in the courtroom, and later to the press. One elderly client of Du Re Bang, Park Yung-Ja, a quiet, brave, and wise woman, testified without cover and with great dignity what she had experienced and ways she has suffered. She finished reading her testimony with a clear and strong voice, although her hands were shaking. All people in the court including judges kept silent and waited for her to finish her story. She also spoke at the press conference after announcement of the court ruling. Another spoke to the judges behind closed

doors. Other halmoeney, like Kim Sook-Ja at the Sunlit Center created and produced many performances including theater, musicals, and chorus. Though these women did not testify in front of the judges, they carried the stories and messages in creative ways. This victory is followed by the possibility of a re-unified Korea—where the families and the nation can be together again.

Today, what is the role of American and US-based feminists in the struggles for kijichon women's lives? How must WE move from Shinsaetaryoung to Critical Consciousness to Feminist Praxis?

The next step must be for US activists to bring similar lawsuit to US courts for the US role in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militarized prostitution and violence against the women in Korea. Now, because many of kijichon women are Filipinas—result of the globalized neoliberal economic system that places Philippines economy below Korea and women's labor below Korean women's. Thus, the kijichon issue has become bigger than Korea and Korean women and the struggle even more transnational than before.

More than focusing specifically on kijichon issues, we—US feminist—will do our best to hold our wretched government accountable for supporting the peace process. I bring my comrades' and my deepest hope and desire to declare the Korean Peninsula a de-militarized zone soon: no military exercises, bases, no weapons, no military personnel. Instead, the people of the Peninsula—along with Asian and Pacific neighbors of Okinawa, the Philippines, and Guam—will live in a truly secure world: free from violence of any form; all people living in dignity and with secure livelihoods; and healthy natural environment that can support all life.

Thank you!

두레방, 언니들, 그리고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김태정 (두레방 활동가)

들어가며

두레방의 일상은 좁은 두레방 복도에 둘러앉아 마치 어제의 일처럼 30년 전의 일을 들려주시는 언니들의 이야기보따리를 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매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반복하여도 언니들은 지겹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다. 사실 활동가는 하루 종일 듣는 것에 힘듦을 느꼈던 적도 있었겠지만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도 가끔씩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코 허투루 들을 수 없었다. 언니들은 자신들이 묵혀놓았던 젊은 시절들을 들어주는 이가 있어 더욱 신나게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 같다.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면 언니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레방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지촌의 문제도, 여성의 문제도, 사회 문제도 모르는 나는 언니들 표현에 따르면 풋내기였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언니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해야 할 일을 못해 야근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런 세상모르는 풋내기도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정말 이건 아니겠지?' 이런 의심과 함께 언니들에

게 폭력을 행사한 국가의 실태를 언니들 이야기 속에서 알게 되었다. 어느 역사 책에서 나 미디어에서 결코 알지 못했던 일들을 작은 마을 뺏뻘에서 배우게 된 것이다.

두레방에서 일 년 활동 남짓 됐을 무렵 두레방은 기지촌여성들에 대하여 국가가 저지른 폭력성을 알리고자 하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풋내기인 내가 언니들의 진술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언니들에게 왜 이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나 언니들은 달랐다. 굳이 소송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런 소송을 준비해주는 두레방과 관심 가져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송을 준비하자고 한 말로부터 실제 시작을 하기까지 조금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확한 증거자료나 소송을 맡아 줄 변호사 단체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두레방은 계속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과 관련 단체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덕분에 재판에서 언니들의 억울함이 드러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언니와 두레방은 함께 국가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 하였다.

☮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활동

기지촌여성인권연대의 활동을 이야기 하지 않고 국가배상청구소송 과정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연구모임, 홍보 활동, 심포지엄 등 하며 차근차근 소송 준비를 진행하였다. 연대의 여러 단체와 변호인단, 학자, 관련 개인들이 함께하였기에 언니들이 기지촌에서 겪은 삶을 한국 사회에 드러내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11월6일 기지촌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연대(가칭) 기획회의
2008년 12월 29일 기지촌여성과 함께 하는 여성연대(가칭) 기획회의; 과거사 자료 정리
2009년 2월 19일 기지촌여성문제에 대한 단체 워크샵
2010년 12월 8월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소모임
2011년 2월 24일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 처음 단계
2011년 3월 28일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특별법제정 운동을 위한 연구 소모임
2012년 8월 31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출범식
2013년 6월12일 기지촌성매매 여성지원 등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 사전간담회
2013년 10월 20일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25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성매매, 기

지촌, 그리고 인권
2013년 12월16일 기지촌여성 지원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
2014년 2월 20일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2014년 3월 3일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내기 위한 진술 작업 정리 시작
2014년 4월 8일 기지촌여성 국가배상소송비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행사
2014년 6월 25일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
2014년 12월 19일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 기자회견
2017년 1월 20일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2017년 3월 20일 미군'위안부' 소송결과의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8년 2월 8일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항고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

언니들의 이야기를 담다-진술서작업

; 2014년 3월 본격적으로 언니들의 진술서 작업이 진행되었다. 진술서, 변호사 위임 계약서 작성,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통장사본 등 준비 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하였다. 준비과정에서 다른 서류들은 쉽게 진행이 되었지만 진술서 부분에서 활동가도 언니들도 힘들어하였다. 재판에서 언니들의 피해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진술서 작성이 필요한데 언니들에게 법적 조력을 주며 작성하기엔 활동가들의 법적 역량이 약했기 때문이다. 몇 번의 진술서 작업 후에야 제 시간 안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2014년 6월 25일 소장을 내고서도 국가의 피해가 더 드러날 수 있는 진술서를 위해 내용의 수정이 있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의 일도 기억해 내기 힘들다. 그러나 언니들의 경우 30년 전의 일들을 기억해 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니들은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재판에서 원하는 정확한 날짜, 횟수 등을 기억하기 어렵다. 또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날이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이미 버린 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로는 언니들의 진술인데 그 기억을 유추하기 위한 작업은 하루 만에 끝을 낼 수 없었다. 당시 대통령을 생각하며 연도를 유추하고, 같은 시간에 함께 했던 언니들끼리 기억을 맞추며 유추하였다.

비록 언니들은 정확한 수치로 기억해 내긴 어려웠지만 그 당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국가의 조장이 있었는지 기억 하였다. 기억하는 가운데 당시의 설움이 생각나 눈물을 훔치는 언니들도 있고, 젊은 활동가에 말하기 힘들어하는 언니들도 있고, 화가 나서 진술 내내 욕을 퍼 붇는 언니들도 있었다.

국가 폭력에 맞서 증인으로 나서다-당사자 증언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은 11번의 재판이 있었다. 그 과정 안에는 여러 중요한 증언들이 있었다. 학자, 보건소 의사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당사자 증인에 참석한 언니는 그동안 재판을 오가면서 적나라한 피해를 자세하게 설명이 없는 증언에 답답함을 호소하였던 중 당사자 증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언니에게 요청하였고 언니는 공개 재판으로 하여 증언에 나서겠다고 하였다.

재판에서 시간의 차례로 사건의 차례로 잘 설명을 하기위해 변호사는 두레방에 방문하여 언니의 이야기를 정리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은 언니에겐 결코 가볍지 않았다. 과거 일을 생각하며 자기가 가진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들려주는 내내 눈물이 끊이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언니는 눈물이 많은 자신을 탓하면 재판에서 울지 않기 위해 일주일 내내 정리한 내용을 연습하였다. 그리고 2016년 7월 8일 언니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담배로 긴장을 풀며 마지막 연습을 끝으로 재판장 앞에 서서 증언을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어온 언니는 판사를 향해 읽어 내려갔다. 언니는 증언 내내 울지 않았던 눈물이 벌컥 쏟아졌고 재판에 참석한 다른 언니들도, 활동가들, 변호사 등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판사는 눈물을 참아 내려 눈이 벌겋게 되었다. 판사는 언니에게 '왜 그 당시에 고발하지 못 하였습니까?' 질문 하였고 언니는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대답이 이어졌다. 그리고 언니의 증언 재판은 마무리 되었다.

1심 판결을 받고

;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 조언을 받았을 당시 들려온 대답은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겠냐라는 부정적인 인식들이었다. 그래서 그랬던지 1심에 대해 아무 기대도 없었고 언니들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주었던 거 같았다. 그러나 1심 판결을 우리의 주장 일부가 인정되어 것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판사들이 법적 부분을 이해하고 판결을 내렸겠지만 마치 증언에서 눈물을 쏟게 하였던 언니의 덕이 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심 판결은 주요 내용은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 이루어진 성병 감염인에 대한 격리 수용 치료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소송에 참여한 122명 중 57명이 인정되었고 피고 측인 한국 정부가 주장한 소멸시효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 결과를 듣고 언니들의 주장은 갈라졌다. 본인들이 받은 불법적인 요소가 법에 의해 구분되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하는 주장과 나이 많은 언니들이라도 지원받게 계속 그렇게 주장해라 하는 주장이 오갔다. 우리는 그 판결을 떠나 모두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주장한 내용으로 다시 항고를 시작할 것을 설명하였고 언니들에게 항소심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이야기 나눴다. 언니들은 당연 진행하겠다고 의견을 내주었다.

항소 진행- 최후변론

; 항소를 시작하면서 1심 판결을 참고하여 진술서 수정이 들어갔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 것이 아닌 시대적으로 57명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날짜 부분을 유추하여 다시 진술서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다시 진술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언니들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돌아와 마지막이라며 으름장을 내고 진술서 진행을 하였다.

항고심 재판은 한국의 성산업 역사에 대한 증언을 끝으로 최후변론까지 1심이 약 4년에 걸친 기간에 비해 1년 정도 시간밖에 안 걸렸다. 언니들도 두레방 식구들도 1심과 비슷한 결과를 가질 것이라 예상하였고 부디 57명에 들어가지 못한 언니들이 항고심에서는 들어가 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재판에 참석한 언니들은 1심과 다르게 본인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자리가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하였다. 판사가 우리의 얘기를 들어야 더 좋은 것이 아니야는 문의가 있었고 1심이 그런 자리였고 2심 항고심에서 전체 역사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쉽사리 아쉬운 마음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최

후변론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1심에서 공개 증언을 하신 언니가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하였다.

최후 변론의 준비는 전에 증인으로 나섰을 때와 다르게 준비되었다. 모든 언니들에게 판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씩 할 것을 의견을 내었고 언니들은 기꺼이 두 마디 이상씩 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대표로 재판에서 발언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도 일주일 정도 걸렸다. 언니가 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언니 말에 맞춰 작성해 갔다.

2017년 12월 21일 최종변론이 있는 재판에서 양측 변호사는 준비한 법적 내용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언니가 변론을 하였다. 언니는 첫 문장을 읽음과 동시에 눈물이 쏟아졌다. 부들부들 떨면서도, 눈물이 계속 나면서도, 언니는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재판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언니는 피고 측 정부 변호사의 변론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여 감정을 다 잡을 수 없어 울 수밖에 없었다며 정확한 음성으로 판사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내 비치셨다.

2심 판결-정부의 위법함이 인정되다.

2018년 2월 8일 항고심 판결이 있었다. 그저 1심과 같은 판결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판결은 우리들이 주장한 정부가 기지촌을 조장하여 여성들이 피해받은 부분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왔다. 판사가 결과를 이야기할 때 장 안에서는 언니들이 숨죽이며 눈물을 참았다. 그리고 재판장을 나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언니들과 활동가들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가 부둥켜안았다.

판결의 요지는 재판부는 국가 기관이 작성한 문서를 통해 그들이 기지촌에서 여성들의 성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영업시설을 개선하는 등 성매매를 조장했다고 주장을 인정하였고 또한 과거 위안부 등록제와 '애국교육'이 실시된 것을 통해 기지촌에서 성매매 행위를 적극 조장했다고 보았다. 국가가 미군 위안부들의 성(性) 내지 인간적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또는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고, 이로 인해 미군 '위안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국가 기관들이 '토벌'이나 '컨택'으로 '위안부' 여성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강제로 데려온 후 의료 진단 없이 무차별적으로 페니실린을 투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측이 상고를 준비할 것이라 언니들에게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언니들은 이 날만은 이 판결이 우리의 판결이라 믿고 수고해주었던 변호인단, 관련 단체 학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마무리

재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언니들과 같이 먹는 저녁시간이 좋았다. 메뉴는 다양하지 않았지만 언니들이 선택한 메뉴가 있는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으며 그날 재판에서 있었던 내용들, 오랜만에 만난 다른 지역의 언니들을 만나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그 자리가 좋았다. 그래서 돌아오는 운전은 매번 내가 한 이유일 수도 있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 국가와 싸우는 일이라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 언니들에게 잊고 지내자고 하였다. 언니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무심한 말이었다. 2심 판결까지 약 5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소송에 참여하신 언니들 몇 분은 우리의 주장이 인정된 판결을 듣지 못한 채 돌아가셔 안타까움이 더 해졌다. 늘 언니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고 보통 할머니들과 다른 젊은 감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언니들과 지내면서 나도 모르게 언니들이 언제까지나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망각하고 있었다. 이미 언니들은 어느새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건강은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해가 거듭할수록 달라지고 있었는데 말이다. 언니들의 건강을 유심히 체크하며 끝까지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소송 시작 전에도, 소송이 진행 중에도, 기지촌여성인권연대의 멤버는 각자 자리에서 언니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여전히 과제로 남은 경기도 기지촌여성 조례 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관련하여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언니들과 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레방에서 함께 하였다. 그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언니들과 늘 함께 동행 하고 있었다. 그 동행의 길 끝엔 더 나은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언니들의 모습이 있기를 바란다.

꼭 알리고 싶다.

박영자 (두레방. 소송 원고)

의정부 뺏뻘에는 30년동안 두레방이 한결같이 옆에 있어주었다.

어느날은 밥을 먹고 어느날은 떡을먹으며 두레방에 둘러앉아 두레방 식구들과 동네 언니들과 함께 있었다. 그 시간은 결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는 가는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두레방 식구들와 함께 한 지 10년이 넘어서야 내가 기지촌에 있었던 것이 정부로 부터의 폭력이라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옛날 일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니 더욱 화가 치밀러 올랐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두레방에 오는 여자들도 모두가 국가로 받은 폭력을 알고 나서 욕까지 저절로 나왔으니 말이다.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은 피해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소송하기 시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 원장님으로부터 국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나의 피해를 드러내자고 했을 땐 믿어지지 않았다. 그 시절 나는 감히 정부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들겠다고 생각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레방 식구들이 도와준다고 하고 나는 소송에서 나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부터 시작하였다. 그 시절 정부는 기지촌에서 나를 이용하면서 달러를 벌면서 애국자라 칭하고 많이 벌어준다 고맙다 하였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여자이었다. 기지촌에서 나올라고 해도 나올 수 없게 만든 국가로부터 나는 나의 손가락질 받은 여자가 아니 평범한 여자임으로 나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다.

소송의 진행은 길게 느껴졌다. 두레방 식구들과 법원을 갈 때마다 아픈 허리때문에 고생을 하였다. 준비한 방석을 깔고 나서야 재판에 집중 할 수 있었고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답답함을 느꼈다. 그것은 나만 느낀 것이 아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평택에서, 동두천에서 온 여자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재판장 안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증인 할 수 있게냐는 제안에 쉽게 손을 들었을 것이다. 증언준비를 하는 동안 옛 기억을 더듬으며 다시 북받쳐 올라왔다. 바보 같이 그 안에서 답답하게 당하고 살았을까? 왜 국가에게 이용을 당했을까? 후회스러운 마음에 증언 준비를 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 남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일주일을 꼬박 증언하는 연습을 하고 자신감이 생겨 잘 말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 재판 당일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연습하는 기간내내 북받쳤던 느낌이 사라져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하고 싶은 발언을 준비한 종이를 읽으며 다시 감정이 잡을 수 없었고 눈물을 흘리며 마무리 하였다.

재판 항소심을 한다고 다시 허락을 구하는 연락을 두레방에서 받았고 당연 진행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첫 번째 재판과 다르게 이번 재판에서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중에 변호사님과 두레방 식구들에게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아닌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항소심 마지막 최후의 진술에서 할 수 있겠냐는 문의가 왔을 때 바로 한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잘 읽을 수 있도록 일주일동안 단어와 문장을 고치며 준비하였다. 우리쪽 변호사가 화면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자세한 설명이 끝나고 반대편 변호사가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화가 났다. 그 젊은 여자 변호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무원들이 잘못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화가 났다. 그리고 최후의 진술을 하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죽을 거 같았다. 연습한대로 읽어 내려가는데 그 억울함 때문인지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고 결코 멈출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그들이 무엇을 알까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억울했다. 그래도 나는 준비한 발언을 중간에 멈출 수 없었다. 판사가 꼭 내 말을 들어주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랬다.

그리고 항고심의 결과는 너무나 기뻤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구나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비통함을 알아주는 판결을 받아서 너무나

기뻤다.

나는 재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두레방 식구들과 삼겹살을 먹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비록 늘 재판에 오고가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런나날을 두레방 식구들과 저녁을 하며 재판의 이야기를 하고 나의 증언에 대해 나의 최후의 진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다음의 재판에 대해 논하는 것이 좋았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 타의에 의해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리고 싶다.

박영자 원고의 법정 증언
- 2016년 7월 8일 1심 재판 9차 변론기일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우린 태어난 이 나라에서 버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입하여 만든 기지촌 거기서 우리는 폭력과 갈취 이용만 당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기지촌으로 들어가게 만든 직업소개소와 포주를 다 묵인해주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번 돈은 상상이상 일 것입니다 몸을 버렸으면 돈이라도 벌었어야죠. 돈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포주만 돈을 버는 이런 구조를 만든 우리나라가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해서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업소개소에 속아 기지촌으로 빚을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빚은 돈을 벌수록 이상하게 더 오르게 되고 십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어른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상대하는 미군은 하루 거르지 않고 5명 이상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도망가면 찾아 잡아오고 때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포주한테 일러서 빚을 올려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억울합니다.

옛날에 박정희 경제개발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애국자 소리 들으면서 달러 엄청

많이 벌어들인 거예요. 그때는 아파트 해준 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일본 위안부 있는데 국가에서 관리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라고 집에 보내는 것도 없고 나라에서 다 버린거잖아요 그럼 책임 져야죠.

군산타운 백태하 라는 사람은 달러를 많이 벌었다고 상 3번 탔다면서요 그 달러 누가 다 벌어드렸는데요? 아가씨들이 다 벌어드린 건데 아파 죽어가도 의사 하나 안 내려다보고 오로지 성병검진만 했습니다. 성병검진은 미군을 위해서 미군 요청의해서 해준거지 우리를 위해 해준건 아니잖아요.

나라의 무관심에 우리의 몸은 병들고 돈도 못 벌고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책임 져야죠.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박영자 원고의 법정 진술
- 2017년 12월 21일 항소심 최종변론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글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가난한 집안의 딸이기도 하며, 가정에서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국가가 허가해 준 직업소개소를 찾았고 그 직업소개소를 통해 기지촌으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팔려가고 싶어 기지촌으로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리숙함을 빌미로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우린 어린 미성년이었습니다. 기지촌에서 십대인 여자아이를 도와주는 어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포주는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이용하여 검진증을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그것조차 모르고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고 미군들에게 성병이 없는 깨끗한 여성으로 내몰았습니다.

숫기가 없다며 약 복용을 강요받았고 그렇게 우리는 기지촌에 갇혀 달러를 버는 기계로 살아왔습니다. 몸이 아파도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임신을 하면 낙태를 시켰고 그 비용은 빚으로 올리고, 기지촌은 돈을 벌면 벌수록

여러가지 이유로 빚이 쌓여가는 이상한 구조였습니다.

기지촌을 나오고 싶으면 도망을 나오거나 미군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을 나오면 포주한테 잡혀 폭력을 받고 빚을 더 올려 다른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미군과 결혼을 한다고 하면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을 불렀고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어 계속 기지촌에 묶어두었습니다.

우리에게 국가는 없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한 파출소는 다시 우리를 포주에게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고통스럽고 치욕스럽던 성병검진을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해야 했고 성병이 없음에도 토벌, 컨텍으로 보건소에서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며 감옥 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보건소에서는 주사 한 번 약 한번 처방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기지촌을 형성하고 내버려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형성했으면 그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하고 관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애국자라 칭송한 국가는 기지촌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미군폭력과 악랄한 포주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고 인신매매의 창구가 되는 직업소개소를 단속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팔려왔습니다.

판사님 왜 국가가 나서서 기지촌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야 했었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기에 내 나라에서 버림을 받아야 하나요?

안에서는 달러벌이 애국자로 밖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 온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가 주장한 돈 천만원, 우리가 겪은 고통에 비해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 역시 평범한 사람들처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햇살 할머니들과 함께 하며

유인경 (햇살사회복지회 간사)

사람들이 최근 들어 미군 '위안부'라고 부르기 시작한, 우리 햇살 할머니들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2010년 10월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미군위안부'는 낯선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군산에서 보낸 터라 주말에 시내에 나가면 미군들과 함께 쇼핑을 나온 미군 '위안부'들을 자주 볼 수 있었으니까요. 미군 '위안부'를 그 여성들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누구네 이모가 양공주가 되었더라~'고 하였습니다. 미군 '위안부'들이란 실상 저에게는 누구네 '이모'였던 것입니다.

햇살사회복지회에서 처음 일하게 되었을 때 머리가 좀 복잡했던 것은 그 누구네 '이모'들을 미군 '위안부'라고 부르면서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이라는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이모들을 미군 '위안부'라고 부르면서 국가 폭력의 희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렸습니다. 2011년 「기지촌 할머니들의 잃어버린 생애사 다시쓰기_햇살할머니들의 기억으로 말하기Ⅱ」 구술집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님께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에 관한 강의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나영 교수의 강의를 듣기 전의 저처럼

우리 할머니들을 '미군 위안부'나 '국가폭력의 희생자'라고 부르는 게 어색할 거라

고 생각합니다. 이 어색함 넘어가고자 햇살사회복지회는 '우리 할머니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부르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햇살사회복지회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동안 진행했던 '미군위안부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연극과 뮤지컬 공연 등의 프로젝트와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하며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2012년~2014년 동안 '숙자이야기'라는 연극 공연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이 연극은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털어놓고 극으로 만들어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하는 즉흥 연극이었습니다. 저도 매주 빠지지 않고 연습에 참석해서 이야기도 하고 장면을 맞춰봐야 하는 터라 연습 전날이면 할머니들께 전화를 드려야 했습니다. 반은 연습에 꼭 나오라고 협박을 하고, 반은 아양을 떨고 구슬러가며 연습에 나오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습이 있는 날은 작은 선물이라도 나눠드리고 식사라도 준비해서 할머니들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하는 숙제가 있어서 좀 힘들었지만, 그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했는지 마지못해 나오는 척 하는 할머니들이 아이들처럼 귀엽기도 했습니다.

연습 시작 초반에는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했던 이모들이 연습을 거듭할수록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묻어 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긴 세월 안정리에서 함께 '이웃'으로 살아왔던 할머니들조차도 마치 새로 나온 아침 드라마를 보듯이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동안 서로 알지 못하였던 그 사람의 진짜 속내에 피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엄마의 학대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오게 되었던 이모, 친구 따라 아는 집에 놀러갔다가 포주에게 팔려가 기지촌에 들어왔던 이모, 미군과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입양 보내고 힘들게 지내왔던 이모의 사연들은 햇살의 안방 흘러나와 평택과 서울의 연극 무대로까지 흘러갔던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자기 이야기들을 조명 아래에서 객석에 앉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할머니들은 연극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쥬크박스 뮤지컬_그대 있는 곳까지」 공연도 하였습니다. 연극 배우에서 뮤지컬 배우로 변화된 우리 할머니들은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한 번 서로의 사연들에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사소한 에피소드 하나에도 열 살 소녀들처럼 박수를 치며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각자 털어놓은 이야기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아이그!... 니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하면서 새롭게 알게된 이야기에 또 가슴이 아파 눈물을 쏟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뮤지컬 장면 중에서 TV를 보다가 잠든 엄 할머니가 생일을 맞아 꿈속에 찾아온 아들에게 미역국을 먹여 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엄 할머니는 이 장면을 연습할 때마다 미국으로 입양보낸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습을 거듭하던 어느 날 엄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된 신문을 봤다는 사람을 통해 입양 보낸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양 보낸 아들은 어느 덧 2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과 손주들의 모습을 본 할머니는 "살아 있다는 것 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연극 내용이 현실이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 뿐이 아니었습니다. 뮤지컬의 마지막 장면에서 '소나무' 노래를 합창할 때 할머니들이 다함께 힘을 다해 '소~나무야~ 소~나무야!~' 부를 때… 관객들도 할머니들과 한 마음이 되어, 정말 하나가 되어 노래하는 장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노래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만사가 춘몽과 같다고 말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지만, 동시대를 살아온 우리 할머니들의 얼룩지고 굴곡진 세월을 나의 세월과 삶에 올려놓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가 사람들이 말하는 '소통'과 '이해'가 무엇인지 진정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한국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하면서 할머니들께 소송에 관해 설명하고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클럽에서 일만했지 미군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할머니, 소송이 질게 뻔한데 창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할머니 등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소송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진술을 하시더라도 피해시기와 장소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여러 번의 구술자료집

을 만들며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들도 많았습니다. 진술에서 고향도 달라지고 기지촌에 유입되었던 나이도 달라 당황한 적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할머니들도 계셨겠지만, 아마도 본인 스스로 자기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겨 달고 있었을 할머니들의 이런 행동들이 도리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일정이 잡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여러 할머니들과 함께 서울지방법원을 향해 출발합니다. 할머니들은 큰 가방 안에 약봉지며 물병 등을 챙겨넣고, 필수 아이템인 커다란 모자와 썬그라스를 쓰고 등장합니다. 아픈 다리를 절룩이며 뒤뚱뒤뚱 걸으며 따라오시는 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분 등 서울까지 이동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았을 텐데 무엇이 그녀들을 이렇게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대한민국 법원은 지난 2월 8일에 있었던 「한국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재판」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 및 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 및 정당화했다"며 1심에 비해 국가의 책임을 더욱 크게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들은 할머니들은 지난날들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은 듯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미군위안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모임, 시민강연회, 시민토론회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미군위안부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 햇살이 걸어온 길

2002년 햇살센터로 개원/주1회 모임시작
2003년 1주년기념 및 이전 감사행사(8/25)-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13-195
2004년 정서함양 프로그램 사업. '햇살로 수 놓아요' 및 소식지 3호 발행
2005년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에 '안정리 기지촌 할머니들의 상황' 발표
2006년 아름다운 시민상 '민들레 홀씨상' 수상(평택참여연대)

'아름다운 노년, 인생그림 새로 그리기' 프로젝트사업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2007년 '이제라도 밝은 노후 만들자' 사업(경기도여성발전기금 지원)

2008년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경기도여성발전기금 지원)

'기지촌 할머니들을 위한 상담서비스'(경기도여성발전기금 지원)

기지촌 할머니를 위한 정서함양 프로그램(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2009년 기지촌 할머니들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실시(미국감리교 선교부)

기지촌 할머니들의 주거대책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발대식 및 한 여름밤의 음악회 개최, 7주년 행사

'Developing Home Sweet Home Award'상 수상(Hillside UMC, 미국)

공동생활가정 "햇살로 수 놓는 집" 개소(3층 6가구 다세대 주택/ 대한주택공사)

2010년 정서안정을 위한 감성치유프로그램 -"햇살 Life"-(평택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지촌 할머니들을 위한 효도나들이 -평화의 휴식-(경기도여성발전기금 지원)

8주년 행사 및 '여덟바퀴를 돌아서' 연극 공연 (6.8)/ 햇살 소식지 9호 발행 (10.20)

Dark Roots Of Lotus('기지촌 여성노인들의 기억으로 말하기'책을 영어로 번역)발행

2011년 기지촌 할머니들의 정서함양프로그램 『내안의 나를 찾아서』(평택시사회단체보조금)

기지촌 할머니들의 잃어버린 생애사 다시쓰기 (경기도여성발전기금 지원)

9주년 행사(6.1) / 햇살 소식지 10호 발행(10.20)

『기지촌 할머니들의 기억으로 말하기 II』 발행 (11.15)

2012년 할머니들이 출연한『숙자 이야기』 연극공연(7.10/ 10.25 팽성국제교류센터)

기지촌할머니들의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 '이제라도 밝게 살자!'(평택시사회단체보조금)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연극치료워크샵 - '밝고 당당하게 살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지촌 할머니들의 삶에 대한 공감을 위한 연극공연 - "일곱집매" (경기도여성발전기금)

10주년 행사(5.15) / 자료집『기지촌 할머니들의 기억으로 말하기III』 발행(5.15)

햇살소식지 11호 발행(10.20)

2013년 댄스(Dance) 프로그램 - 『앞으로, 뒤로, 터닝!』 (평택시사회단체보조금)

플레이백시어터 『나와 우리의 연극만들기』 (경기도여성발전기금/ 강사: 노지향 대표)

11주년 기념행사(장소: 팽성복지타운/ 5.14)

'숙자이야기' 연극 공연(제15회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자료집 '햇살할머니들의 기억으로 말하기 IV' 발행 (현대자동차기금/ 10.20)

햇살소식지 12호 발행(10.30)

기지촌여성 지원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국회2소회의실/ 12.16)

2014년 **드라마 테라피(Drama therapy) '행복한 나 만들기'** (평택시사회단체보조금)

『숙자들의 안정리 바깥 나들이』 -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위풍당당 프로그램과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젝트 (경기도여성발전기금)

12주년 기념행사(5월9일 오후 2시/장소: 평택평화센터)

기지촌 할머니들의 사진전<보통이름 숙자> (SPACE99/10.23~11.19)

연극 『숙자이야기』 공연(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봄/11.2)

햇살 소식지 13호 발행(11.10)

2015년

『'햇살' 언니들의 하모니: 썬샤인 (SUNSHINE) -기지촌 할머니들, 노래로 소통하다.』(경기도여성발전기금)

정서함양 및 신체 활성화 프로그램-「해피 투게더(Happy Together)」(평택시사회단체보조금)

소식지 『햇살이야기 14호』 발행(10.10)

2016년

「쥬크박스 *뮤지컬* - YOU ARE MY SUNSHINE !」(경기도성평등기금기금)_(10.31 공연/더기쁜아트홀)

'햇살' 14주년 행사 (4.21/ 팽성복지타운)

기지촌 할머니들의 플레이백 씨어터-『나의 이야기 극장』(평택시여성발전기금)_(7.1공연/더기쁜아트홀)

소식지 『햇살이야기 15호』 발행(11.20)

2017년

기지촌 할머니들의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평택여성발전기금)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쥬크박스 *뮤지컬* - 그대 있는 곳까지」(경기도성평등기금기금)_(9.12 공연/서울여성프라자)

'햇살' 15주년 행사 (5.18/ 팽성복지타운)

소식지 『햇살이야기 16호』 발행(11.10)

2018년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그림책 만들기「그래도 괜찮아!」(경기도성평등기금)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감정표출작업 「즐거움UP, 속상함 DOWN」(평택시여성발전기금)

'햇살' 16주년 행사 (5.10/ 시온성교회 벧엘관)

저는 햇살사회복지회 회원입니다.

ㅇㅇ숙 (햇살사회복지회. 소송 원고)

안녕하세요? 저는 햇살사회복지회 회원입니다.

저는 서울 왕십리에서 2남 1녀중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삶은 우리집 뿐만 아니라 대부분 너무 가난해서 끼니조차 해결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빨리 돈을 벌어서 부모님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게 되는 날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가 19살 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삼각지에서 우연히 만나 친구 집에 놀러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친구는 미군과 함께 살고 있었고 제 눈으로 보기엔 미제물건도 가득하고 침대도 있는 집이 너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항상 가난에서 벗어나 가족들이 굶지 않고 살수 있는 날을 상상했던 나는 "미군과 만나면 저렇게 잘 살수도 있구나~"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가 미군과 지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일할 곳을 소개해 주어서 안정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돈을 벌려고 갔지만 그곳에서는 제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목골목 번쩍이는 클럽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더피스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건물 2층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그 중 방 하나를 제 방이라며 쓰라고 했습니다.

방엔 침대하나 거울하나 가 전부였습니다. 포주는 저에게 미군들을 상대하라며 화장도 해주고 이상하게 화려한 옷도 입혀놓고 미군들을 보면 그냥 웃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간다고 했더니 무섭게 소리치며 외출도 하지 못하게 하고 삼촌들에게 저를 잘 감시하라고 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감시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미군들을 상대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제가 돌아오는 돈은 없었고 심지어 빚만 늘었습니다. 밥값, 화장품값, 옷값, 목욕비 등 이라며 다 공제하고 제가 필요한 물건을 얘기하면 포주가 사다주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차마 돈 달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클럽에 내려가서 미군들에게 호객행위를 잘 하는지 구석에서 지켜보며 감시도 했습니다. 한 순간도 나만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병검진도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받았습니다. 안정리 시장골목에 있는 임시보건소에 아가씨들을 다 깨워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도 포주가 보낸 삼촌들이 우리를 감시하러 따라 다녔습니다. 안정리에 있는 팽성약국 아저씨가 검진을 했습니다.

검진도 검진이지만 검사를 받을 때마다 성추행도 당했습니다. 우리같은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해도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말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1985년에도 검진에서 떨어졌다며 평택보건소 몽키하우스에 일주일 동안 감금 당한 적도 있습니다. 페니실린을 맞고 4일이 지나도 안보내줘서 말대답을 했더니 괘씸하다며 3일 더 가뒀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천지에 북한도 아니고 말을 안들었다며 감금을 했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믿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19살 이후로 안정리 기지촌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42년 동안이나 이 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제 과거를 알면 저랑은 상대를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갈 엄두도 못낸 것입니다.

심지어 동네 경로당에도 가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숨을 트고 말할 곳은 햇살사회복지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곳에는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언니들과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커다란 돌덩어리를 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기 가슴에 스스로 주홍글씨를 달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도 상상하지 못 할 것입니다.

지난달 이나영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보니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하며 일했던 일은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에서 짜놓은 판에 재수없게 얻어 걸려가지고 달러벌이로 이용당한 것 같아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용기도 났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 않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정부의 잘못도 인정하라고 소리 칠 것입니다.

우리의 소송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들과 친구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 판결의 의미와 과제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1. 들어가며
-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의 경위

2014. 6. 25. 기지촌 미군 '위안부' 122명[3]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92년 '윤금이 사건'을 계기로 기지촌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고 공론화된 이후로 꾸준히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던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였다.

원고들과 고락을 함께해 온 여러 단체들은 이미 많은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고 국가가 원고들의 '삶'에 얼마나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는지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만, 법률가들이 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기지촌 여성들의 국가배상 청구에 관한 법리검토의견서를 최초로 작성한 것이 2013. 3.경이었고, 원고들의 소송 결심 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약 20여명의 광범위한 대리인단을 구성한 후에도 소를 제기하기까지 1년 여의 시간이 걸렸다.

단체들과의 간담회, 전문가들의 연구 문헌 검토, 원고들의 진술청취, 영상을 포함한

3) 두레방, 새움터, 쉬고(파주), 햇살 사회복지회 등의 단체들이 주축이 되었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이 사건의 원고는 115명이다.

각종 자료를 탐독한 후에야 기지촌 성매매에 대한 광범한 국가의 개입과 관리의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법률상 금지된 행위인 성매매를 국가가 묵인하는 것을 넘어 조장·권유 심지어 미군을 위한 '알선' 행위까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불법행위가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소송의 진행과정과 현재까지 판결의 내용,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이 사건에 관한 문제의식의 발전과정을 전하기 위해서이므로 참고하면 족할 것이고, 주로는 판결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위주로 살펴보면 될 것이다.

2. 소송의 진행 과정

2014. 6. 25.에 제기된 소송은 최근 2018. 2. 28.에 이르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항소심 판결이 나기까지 16번의 변론기일이 열렸고, 원고가 제출한 서증은 142호증의 9까지 547개에 이르고, 여러 명의 전문가 증인이 함께 해 주었다. 법정에서는 원고들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었고, 되도록 많은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랐다.

1) 1심 진행과정

○ 2014. 6. 25. 소 제기 (원고 : 기지촌 미군 위안부 122명, 피고 : 대한민국)

○ 2014. 12. 19. 제1차 변론기일 : 소장 진술 및 답변 내용

* 소장 진술 요약

우선 원고들이 생애를 정리하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그 무게를 우리 법원이 함께 해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1960년대부터 주한미군기지 주변 소위 '기지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온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들을 '위안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1961. 제정 공포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성매매가 전면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촌을 형성 관리하여 사실상 성매매를 방조 권유 조장하기까지 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고는

(1) 윤락행위 방지법에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행위, 즉 권유, 유인, 강요, 조장, 장소제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통령 산하에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만들어 미군기지 주변의 성매매를 권유, 조장하였습니다.

(2) 또한 피고는 기지촌 여성들을 모두 등록하게 하고,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모든 기지촌 여성에게 성병 검진을 강제하고, 역시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성병감염자로 의심되거나 성병 감염자를 성병관리소에 감금하여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였습니다.

(3) 피고는 또한 기지촌 여성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애국교육'을 실시하여 "달러를 벌어들이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애국자이며, 나중에 국가가 취업보장, 노후보장, 전용아파트 제공 등의 방법으로 보상할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기지촌 성매매를 독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기지촌 여성들의 관리에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한미친선협의회나 자매회 같은 민간조직이 동원되기도 하였습니다.

(4) 끝으로 피고는 기지촌 내에서 불법적인 성매매 뿐만 아니라, 포주에 의한 감금 및 화대착취, 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 및 미군에 의한 성병단속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함은 피고 스스로 1962년 조약 제933호로 발효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협약은 체약당사국에게 "성매매 목적의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행위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한다는 요의를 받는 자들이 특별등록, 특별문서의 소유 또는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현존 법규 또는 행정규정을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의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기지촌 형성 관리 성매매 권유 조장은 위법함이 분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원고들이 낸 용기의 무게를 감안하여, 새롭게 마주하게 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직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 1. 30. 2차 변론기일

* 원고들 진술 : 이 사건 특수성에 비추어 재판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진술 - 성매매금지와 권유, 조장의 분리 정책, 한미친선협의회, 애국교육 등 조직적 관리, 구청 경찰 공무원의 위법행위, 페니실린 과다 투약 등의 모든 기지촌 위안부들의 공통적 경험 - 개별공무원의 불법 행위 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지촌 관리에 관한 불법 정책을 수립, 집행 관여 총체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특수성 반영되어야 - 피고는 원고들 주장의 주요 사실에 대한 답변을 누락하고 있음, 한미친선협의회 등의 존재, 운영에 대해서 입장 밝혀야 할 것 - 기지촌 위안부 용어 사용의 중요성 1960년대 이후 사용했다는 피고의 주장 부당 전염병예방법령상 위안부 70년대 후반까지 '위안부', '유엔군을 상대하고' 표현된 각 종 증거 제시 설명 - 성매매 단속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군 상대 성매매를 권유, 조장하며 기지촌 관리정책을 집행한 작위에 대한 책임 주장하는 것임 - 관세청의 윤락행위 대가 취득품 관리 문서 등 증거 제시하며 설명 *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에 사실조회 신청 및 증인신청

* 피고 진술 - 국가가 단체를 통해 관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자료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 - 현재 원고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지칭할 것인가의 문제로 위안부 부당 기지촌 여성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와 구별된다. - 소멸시효 완성

◌ 2015. 5. 29. 3차 변론기일 : 각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고지. 대부분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

◌ 2015. 7. 24. 4차 변론기일 : 증인신청

◌ 2015. 9. 11. 5차 변론기일 : 증인 김연자 (『아메리카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의 저자)

문 주내에 있는 몽키하우스라는 데에 계시지 않았었나요.

답 예, 그때는 낙검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일하는 브라보홀 집에, 거기 또 집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숙소에 MP하고 순경하고 와서 어떤 미군이 저한테 임질 걸렸다고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려 가서 주내에 갇혀서 치료를 받았죠.

문 주내에 있는 몽키하우스에는 얼마 동안 수용되어 있었나요.

답 10일 내지 15일 동안...

문 증인은 몽키하우스에 수용되기 전에 증인 본인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정확히 진단을 받고 통보받은 적이 있나요.

답 아니요.

문 그냥 간 것인가요.

답 예.

◌ 2016. 1. 22. 6차 변론기일 :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증인신문

성매매 여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강제성의 법적 개념은 협소하기는 해도 기망이나 사기나 인신매매성, 감금, 폭력 이런 것들이 강제성을 규정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국제법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신매매 쪽의 활동가들이나 학자들도 강제성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내가 내 의지대로 갔건, 안 갔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을 때 이것을 내 의지대로 탈출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것 못하면 이것은 강제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엄청난 강제성인 거죠.

◌ 2016. 3. 18. 7차 변론기일 : 문정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겸임교수, 의정부 보건소 의무사무관 근무) 증인신문

성병균이 발견되면 '벤자틴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처방하였는데, 이 약은 1회 며칠 동안이나 근육주사로 투여를 해야 하고, 저렴하고 효력이 강력해서 각광을 받기는 했지만, 갖은 쇼크의 원인이 되는 부작용도 있는 약이었다. (본인이 진료를 하던) 그때도 이미

쇼크사 때문에 의사들로서는 회피하는 약이었는데 그 약을 썼습니다.

◌ 2016. 5. 13. 8차 변론기일 : 조영애(파주현장사진연구소, 다큐멘터리 준비 중) 증인신문, 당시 성병검진 및 성병관리소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촬영동영상에 대한 검증

정부에서 지정한 성병진료소와 치료를 위한 성병관리소가 있었다는 사실, 성병검진은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 당시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며 별도의 대장을 두어 관리했다는 사실 확인

◌ 2016. 7. 8. 9차 변론기일 : 당사자 본인 신문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우린 태어난 이 나라에서 버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입하여 만든 기지촌 거기서 우리는 폭력과 갈취 이용만 당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기지촌으로 들어가게 만든 직업소개소와 포주를 다 묵인해주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번 돈은 상상이상 일 것입니다 몸을 버렸으면 돈이라도 벌었어야죠. 돈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포주만 돈을 버는 이런 구조를 만든 우리나라가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해서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업소개소에 속아 기지촌으로 빚을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빚은 돈을 벌수록 이상하게 더 오르게 되고 십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어른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상대하는 미군은 하루 거르지 않고 5명 이상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도망가면 찾아 잡아오고 때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포주한테 일러서 빚을 올려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억울합니다.

옛날에 박정희 경제개발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애국자 소리 들으면서 달러 엄청 많이 벌어들인 거예요. 그때는 아파트 해준 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일본 위안부 있는데 국가에서 관리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라고 집에 보내는 것도 없고 나라에서 다 버린거잖아요 그럼 책임져야죠.

군산타운 백태하 라는 사람은 달러를 많이 벌었다고 상 3번 탔다면서요 그 달러 누가 다 벌어드렸는데요? 아가씨들이 다 벌어드린 건데 아파 죽어가도 의사 하나 안 내려다보고 오로지 성병검진만 했습니다. 성병검진은 미군을 위해서 미군 요청의해서 해준거지 우리

를 위해 해준건 아니잖아요.
나라의 무관심에 우리의 몸은 병들고 돈도 못 벌고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책임 져야죠.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 2016. 9. 2. 10차 변론기일 : 당사자 본인 신문

문 킨텍을 딩해 낙검자수용소에 수용되었을 때, 그 전 또는 수용된 직후에 원고에게 성병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성병 검진에서 성병에 걸렸다고 결과가 나오거나 컨택을 당했을 때 낙검자수용소가 아닌 다른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나요.

답 그것은 안 됩니다. 낙검자수용소에 가서 거기서 검진을 해서 합격이 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든지 했지 절대 다른 데에 가서 치료는 안 됐습니다.

문 원고는 성병 검진을 통과하지 못해서 소요산 낙검자수용소에 가게 된 적이 있지요.

답 예.

문 그 소요산 낙검자수용소는 '몽키하우스'라고 불렀지요.

답 예.

문 위 낙검자수용소의 시설은 어땠나요.

답 낙검자수용소 들어가는 데 여기는 과수원이었었어요. 그리고 문을 철커덕 열면, 쇳덩어리로 된 문을 열면 거기에 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운동장이에요. 그러고 가생이로는 쭉 철조망이 있습니다. 철조망을 쳐놓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2층짜리 낙검자수용소가 빌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또 문을 철커덕 열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가겟방에 있는 아저씨가 이만한 자물통으로 또 문을 잠그고, 아래층에는 매점이 있고 이 옆으로는 검진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언니들이 3~4명 자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이 4개가 있고, 가생이에는 쭉, 철조망 있는 가생이는 전부 다 산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담요를 하나 줍니다. 담요를 주면 하나 덮고 하나 깔고 이러고 자고, 소독냄새가 났고, 그러고 수세식도 아니고 그냥 옛날에는 똥뚜간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거기서 대변 보는데, 세 변소가 있는데 한 군데는 못을 박아놓고 두 군데는 문을 열었는데 냄새

◌ 2016. 11. 18. 11차 변론기일 : 최종 의견진술

◌ 2017. 1. 20. 1심 판결 선고

2) 항소심 진행 과정 (5회 변론)

◌ 2017. 6. 15. 항소심 첫 변론 기일 : 쌍방 항소 / 항소이유서 진술

원고의 항소이유: 기지촌 조성 및 관리.운영 책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책임, 성매매 정당화.조장 책임,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위자료 과소 산정과 피해 원고의 누락

◌ 2017. 7. 20. 2회 변론기일 : 증인신청

◌ 2017. 9. 31. 3회 변론기일 : 박정미 교수(충북대 사회학과) 증인신문

◌ 2017. 10. 26. 4회 변론기일 : 추적 60분 〈국가란 무엇인가〉 동영상 검증

◌ 2017. 12. 21. 5회 변론기일 : 항소심 최종 의견 진술

◌ 2018. 2. 8. 항소심 판결 선고

3) 상고심(3심) 진행 중

◌ 쌍방 상고

◌ 현재 쌍방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 후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

3.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판결의 내용과 의미

1) 1심 판결의 내용

1심 법원은 1977. 8. 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성병치료소인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된 적이 있던 여성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다(2014가합544994).

구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은 '제3종 전염병'을 '결핵, 성병, 라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에 관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제1종 전염병환자와 라병환자는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요양소 혹은 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지정한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 이외에 다른 이들에 대한 격리수용 치료의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즉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된 1977. 8. 19.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헌법이 신체의 구금과 수용, 자유에 관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데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판결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 구조적으로 미군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가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권유하였다는 점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기지촌 위안부들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매우 의미가 컸다. 특히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면서 한 판단들은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하여 매우 정확하게 설시하고 있기도 했다.

2) 2심 판결의 내용

◌ 항소심 판결의 요지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4가지로 정리하여 판단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은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제1주장),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제2주장),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제3주장), '애국교육' 등을 통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제4주장)'로 인하여 국가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제1·4 주장에 관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배척하였지만, '성매매의 정당화·조장 행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위법성을 인정하였고, 제2주장은 전부 배척하였으며, 제3주장에 관하여는 1977. 8. 19. 개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이전 강제 격리수용한 행위, 1977. 8. 19. 이후 '토벌'이나 '컨택' 등과 같이 의사의 진단 없이 강제 격리수용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보았다.

○ 국가의 위법성 인정 (1) : 국가의 성매매 정당화・조장

① 기지촌 운영・관리의 구체적 목적과 성매매 조장

- 피고가 단지 기지촌 내 위안부 성매매를 소극적으로 방치・묵인하거나 최소한도의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외국군의 사기 진작'이나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매매 행위 자체 또는 성매매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
- 작성주체가 다양한 공문서들을 주된 근거로 판단
-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경 보건부 작성 「청소 및 접객영업 위생사무 취급요령 위생사무 추가지시에 관한 건」: '위안부'를 '땐사'나 '접객부'와 구별하여 '위안소에서 외군을 상대로 하는 위안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자'로 정의. '이 영업은 6・25 동란을 계기로 전쟁수행에 수반된 특수영업형태이며 의법적 공인된 사업이 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기재하여 적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
- 1961. 9. 14. 경기도가 시행한 「유엔군 간이특수음직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기준 수립」: 유동하는 위안부의 고정수용을 전제로 업소 장소의 위치나 종업원 수 제한, 영업시설 개선 등에 관한 논의. 공문에 '현지 주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 양양 면을 고려'한다는 점, '외화 획득과 국가 예산 절약', '유엔군에게

보다 나은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혁명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음'이라는 목표 명시.

- 1971. 6. 14. 용산경찰서장 「미군접객업에 종사하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미군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일부 … 에게 불쾌감을 조장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일들은 반성하고 시정합시다. 그러한 사소한 사건도 여러분의 적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적들을 돕고 있으며, 이로써 여러분 … 국내안보는 약화된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미군은 여러분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침략과 파괴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와 함께 당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73. 3. 춘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조례 공포」: '공동관심사'로 '1.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내외시설 개선, 위생감독, 2. 성병 보균자 및 업태부의 선도' 등 열거

② '애국교육'의 실시와 성매매 정당화·조장

- 교육의 내용에 위안부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성병검진의 중요성 강조. '가랑이를 벌리지 마라' 등 통상 포주가 지시할만한 사항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위안부를 상대로 직접 교육
- "미군을 주로 상대하는 거니까 미군을 의식해야죠. 미군한테 서비스를 잘해라. 교육은 어느 홀이면 홀을 정해놓고 거기로 집합을 시켰어. 시간대를 맞춰서 그렇게 집합을 시키죠" : 파주시 교육담당 공무원

③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와 성매매 조장

기지촌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안부들의 성병 치료를 행함에 있어 법령에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등 의료전문가에 의한 진단 등의 합리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토벌, 컨택' 등의 이름 아래 원고들을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 등의 강제수용시설에 격리수용하거나 신체적 부작용이 클 수 있는 페니실린을 무차별적으로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인격권

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 국가의 위법성 인정 (2) :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 1977. 8. 19. 이전 격리수용치료행위 : 1977. 8. 19. 구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행위는 법적 근거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전에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
- 1977. 8. 19. 이후 격리수용치료행위 :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 없이 성병의심자에 불과한 위안부들을 곧바로 작검자수용소 등에 격리한 경우, 즉 1) '토벌'이라 이름 붙여진 합동 단속 당시 보건증(패스)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소지하였더라도 정기 성병 검진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를 곧바로 격리수용한 행위, 2) 외국군은 성병을 옮긴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진단 없이 대상자를 격리수용한 '컨택'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여전히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해진 강제수용 내지 사실상의 구금행위로서 위법

○ 원고들의 손해 발생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가 설치한 특정지역 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법성의 핵심은 피고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조장·정당화하여 원고들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위법이 핵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 :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 국민이 담당 공무원 등의 성매매 정당화·조장이나 강제적인 격리수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에도 그 권리행사 기회를 국가에 의하여 사실상 차단당한 채 장기간 시일이 경과. 이러한 사실상태에서 국가입장에서 계속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보호가치 없는 믿음
- 강제격리수용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권위주의 통치시대와 그 당시 미군 위안부 등에 대해 폐쇄적이었던 국민

정서,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으로 형성되었던 사회문화

-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인권침해
- 당시 원고들의 나이, 경험, 교육수준, 시대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법성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채무자인 국가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이므로 이는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되었음

3) 판결의 의미

○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드러내는 첫 번째 과정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아픈 현대사의 단면. 한 때 산업역군으로 치켜세우던 세상은 이들을 등졌고, 원고들은 아직 기지촌에 남아 외로운 삶. 재판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화되고 법의 영역으로 소환

○ 원고들이 직접 진술하고, 이를 법원이 중요한 입증방법으로 인정

대부분 고령인 원고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털어놓은, 매우 어려운 결단의 결과라는 점과 각 진술이 개별적임에도 피해내역은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습을 반영한 매우 유사한 양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중요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정

○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인권가치의 확인과 국가의 책임 규명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이 규정한 체약당사국의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반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일임을 확인

4. 향후의 과제

1) 입법, 조례를 통한 진실규명 및 지원의 제도화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지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밝혀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위안부들을 등록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부'를 비롯하여 그 어떤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 협조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미측에서 공개된 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 등은 미군과 한국 정부가 여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그 책임의 규명이 입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원고들 개인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므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기지촌 위안부들은 고령이고 가족들로부터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생활상의 어려움 또한 극심하다.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보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경기도 기지촌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 실태분석」[4]자료에 따르면 1964년도에 등록된 성매매여성은 총 19,986명이며, 1962년부터 1968년동안 기지촌의 보건소에 등록된 여성의 수는 동두천 7,000명, 의정부 3,200명 등 만 여명 정도라고 하니 이를 구제할 필요성도 충분해 보인다. 이 문제가 역사와 공동체의 문제라는 점을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입법·제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더한다.

결국 진상규명과 실질적 지원을 시급히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 등 18인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둔 상태이고,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까지 되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2) '성 매수자' 미군의 책임 규명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대향범'이다. 현재 단계에서(비록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이지만, 그 결과가 어떠하든 역사적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성매매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성매매 매개행위를 '적극적·능동적'으로 한 자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논리필연적으로 성을 매수한 자가가 당연히 존재할 텐데, 지금까지 성명불상의 성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자

4) 안태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 4

료와 이번 소송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더라도 혹시 성을 매수한 자들도 '조직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개인의 성매매 행위를 '조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사실관계가 존재한다.

더글라스 그윈(전 의정부 캠프 스탠리 소속 중위)은 자신이 한국에 파견되자마자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태도만 봐도 우리가 매춘부들과 성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5] 실제로 미군 당국은 병사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했고, 콘돔을 소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제임스 해서웨이(미8군 예방의학 장교)는 "1971년 육군성 장군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성병율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다고 우려했다. 사령부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성병을 줄이는 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사령관 지시 사항이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6], 실제로 1971. 11. 19. 한미합동위원회 민군관계 소위원회에서는 "병이 완치될 때까지 성병을 가진 자들을 격리 및 필요한 치료를 보장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당시까지 완성되지 못했던 건강과 위생 관련 패널의 첫 번째 보고서는 1971. 11. 24. 작성되었는데, 당시 미군은 "Registering women", "Enforcing regular VD checks", "Isolating women infected with VD"을 요청하였다.[7] 즉, "여성들을 등록시켜라. 정기적인 성병검사를 강화하라. 감염된 여성을 격리시켜라"는 것은 모두 미군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1972. 7. 31. 민군관계 소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주한미군 사령부의 운용 우선 계획(a priority command program)에 의하여, 한국 정부는 각 접대부(entertainer)들의 보건증 사본, 성병 진료소 명단까지 주한미군 측에 제공하기도 하였다.[8]

또한 당시 국내에서 성병을 치료할 때 사용했던 페니실린 양은 120만 단위정도였는데, 미군은 480만 단위에서 600만 단위를 권장했다(1973. 3. 22. 민군관계소위원회 회의록). 위에서 언급된 예방의학과장이었던 제임스 해서웨이는 1974년에 이르러서는 각 지역의 성병 진료소를 방문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비록 소수일지라도 실제로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다는 점을 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5) 2003. 2. 9. 방영 MBC 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 61회, 「섹스동매, 기지촌 정화운동」 인터뷰

6)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인터뷰

7) 갑 제97호증

8) 갑 제103호증

고 한국 보건당국자들이 페니실린 양을 과소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480만 단위(unit)를 사용할 것을 지도하기도 했다.[9)]

이에 더하여 기지촌에서의 한국정부의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는 2차 대전기 미군의 성매매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확인된다.[10)]

즉 '조직적'일지도 모르는 미군의 성 구매,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의 지시자 혹은 적어도 협력자로서의 미군에 대한 책임 규명은 역사적 진실과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인신매매 금지협약의 체약국인 미국이 자국에서 금지된 행위를 타국에서 하도록 하는 것 역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결국 기지촌에서 일어났던 원고들과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손잡고 시스템을 만든 것"일 수밖에 없다. 그 책임규명의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택할지와 관련하여 오늘의 자리는 너무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5. 나가며

오늘의 심포지움이 기지촌 미군위안부 운동에 있어서 더 나아간 과제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매우 오랜 세월동안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제의 본질을 모색하고, 연구해온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

9) 갑 제110호증

10) 박정미(충북대), 『건강한 병사 만들기:주한미군 성병통제의 젠더/생명 정치』, 가네코 아유무(메이지대), 『미군의 성매매 정책과 젠더 및 섹슈얼리티의 역사적 전개 :19세기부터 제2차세계대전까지』 //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한일 공동 워크숍, 2018. 2. 28.

건강한 병사(와 '위안부') 만들기 : 주한미군 성병통제의 젠더/생명 정치

Making Healthy Soldiers (and Prostitutes): The Gender/Bio Politics of STD Control by U.S. Forces in South Korea

박정미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 This is an incomplete manuscript. Please DO NOT cite or circulate it without the author's permission.)

Introduction

A booklet entitled *Korea: Hills, Rice Patties, and Whores* starts with the following preface:

> This story basically tells about, how much United States Military Property that was given away by U.S. Army Personnel, for the payment of prostitution. This activity took place during their 13 month tour of duty in Korea. (…) At least 80% of the men, who were stationed in Country of South Korea, they were involved in some type of solicitation of illegal prostitution, with

stolen property. All of these incidents took place after August 12, 1954, when the Korean War ended.

As its title and preface show, this booklet describes an American soldier's sexual adventures during his stay in South Korea. The author is Mac E. Woods, who was 17 years old when dispatched to Korea in 1959. As the typo in the title—'rice patties'—and the wrong historic fact in the preface—Korean hostilities concluded with the signing of an armistice on July 27, 1953—imply, it appears that he was not highly educated and published this 14-page booklet without someone else's editing. It is unclear when it was published, how many copies were circulated, and how it was finally received by the Library of Congress. However, one thing is clear: it reveals sexual encounters between American soldiers and Korean prostitutes amazingly frank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anks without any censorship.

Did the U.S. military authorities in Korea know about this underworld of prostitution patronized by their soldiers? From Woods' testimony and other similar records, it is hard to imagine that they did not notice it. What then was the policy towards this phenomenon and what impact did it have on the soldiers and prostitute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history of prostitution policy of the U.S. military in Korea. It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ontrol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ince the U.S. military in Korea took prostitution seriously mainly because it was considered a source of STDs, among the most prevalent illnesses to affect servicemen.

The Interlude of Confusion

To analyze the STD control policy of the U.S. military in Korea, it is necessary first to trace the policy back to the first part of the 20thcentury.

In World War I, the U.S. forces attempted to pose themselves as “the cleanest army” in the world. The main means of achieving this self-image was to prohibit prostitution entirely and emphasize continence (abstinence) to the soldiers (Brandt, 1987). With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the U.S. government reinforced this policy by enacting in 1941 the May Act, a federal law that prohibits prostitution around military and naval establishment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2: 583).

Also during WWII, according to one official history of the U.S. Army, there were “changes in the basic philosophy” regarding STD control: ending punishment of infected servicemen; an increased emphasis on sex hygiene education; and an extensive contact-tracing program to cure and rehabilitate infected civilians (US Army Medical Department, 1960: 139-140). These changes had gender-specific effects. On the one hand, the U.S. military permitted male soldiers sexual freedom provided they did not contract STDs, in particular, by issuing free condoms. On the other hand, civilian women who had sex with servicemen were located, examined, and if proven to be infected, forcibly quarantined until cured (Parascandola, 2008; Park JM, 2017).

When the 24th Corps occupied South Koreaon September 8,1945, , it deployed these policies in the battle against prostitution and STDs. At first, it was confident about their victory. The 1945 annual report of the Office of Surgeon said, “due to placing all brothels “Off Limits,” excellent MP work, and an extensive and thorough educational program, we had had a commendable venereal disease rate” (HQ 24th Corps, January 29, 1946). Prophylactic devices were also distributed widely, sometimes even forcibly (HQ USAFIK, August 29, 1946).

However, the initial optimism soon faded. The STD rate of the 24thCorps rose from 22 per 1,000 troops in 1945 to 102 in 1946 (HQ 24thCorps, March 11, 1947). While the military authorities analyzed this rapid increase in STDs from various angles, their explanations can

ultimately be reduced to one reason: difficulty in controlling both their servicemen and Korean prostitutes, who were regarded as the main source of STDs. In a letter to his subordinate commanders, John R. Hodge, the Commanding General of USAFIK deplored his soldiers' conduct (HQ USAFIK, August 13, 1947):

> I have talked to several soldiers on the subject of venereal disease and drunkenness which are closely allied. Some of the answers are startling. Too many of them take the line why should I make any effort to keep myself clean and holy. (…) They sleepwalk through the day so they can get drunk again at night. They associate loosely with Korean women or any others they can get their hands on.

Military standards deteriorated, off limits regulations were disregarded, and patronizing prostitutes prevailed. In another letter, Hodge said his soldiers "act as though Koreans were a conquered nation rather than a liberated people" (HQ 24th Corps, May 3, 1946; HQ USAFIK, November 6, 1946). Sexual indulgence was an expression of such a domineering attitude. Professor Seungsook Moon concludes that American soldiers in Korea under the occupation were similar to Europeans in their colonies, in that both of them regarded sexual access to occupied women as their entitlement (Moon, 2010: 43).

The U.S. military was not able to establish control over Korean women either. The military authorities thought that the women who consorted with their soldiers were mostly, if not all, prostitutes (HQ 24th Corps, March11, 1947). Interestingly, they shared this perspective with Japanese colonizers, who considered STDs the "demimonde disease" or the disease of prostitutes. The colonial government registered prostitutes and other women deemed liable to render sexual services—*kisaeng* (traditional female

entertainers), barmaids, and waitresses. These women were confined to red light districts and forced to submit to regular STD testing (Park JA, 2009; Park JM, 2011).

This colonial regulation was contrary to the U.S. government policy to prohibit prostitution. USAFIK initially followed its government by breaking up or declaring brothels off limits and rounding up prostitutes with the help of Korean police officers. However, the Surgeon's office was cautious about this practice, arguing "it rendered more difficult the problem of following up contacts." Even when Korean contacts were located, it was difficult to treat them properly due to lack of adequate facilities. Apprehended prostitutes were usually given inadequate treatment by prison physicians rather than being referred to public health clinics (HQ 24th Corps, March 11, 1947; HQUSAFIK, 1947).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U.S. military in Korea attempted to reinforce control over Korean women. In 1946, the U.S. military government enacted an ordinance to punish Korean women who had STDs for "engaging in or soliciting sexual intercourse with any member of the occupying forces." If an infected woman merely solicited, even though she did not actually provide sexual services, she could be arrested. While the Korean women's movement strongly demanded repeal of licensed prostitution, the military government refused to do so (Park JM, forthcoming). Instead, it continued regular STD testing of "entertainment girls," and established free clinics in major cities to treat infected Koreans (HQ USAMGIK, 1947; July 27, 1948).

Control over American troops was also strengthened. In late 1947, all major commands started to establish VD indoctrination teams to inculcate their soldiers with sex hygiene and continence, as well as VD control councils to discuss effective policies to suppress STDs. The result of every VD council meeting was reported to the headquarters of USAFIK. On November 4, 1947, a VD Rehabilitation Training Center was

established in Chinhae in southeastern Korea, to segregate, treat, and train infected soldiers for at least 30 days. It accommodated around 250 soldiers, many of whom felt that they were "being punished" (HQ 24th Corps, December 15, 1947; February 1, 1948; February 7, 1948; HQ USAFIK, October 24, 1947).

Despite these efforts, the U.S. military failed to suppress STDs. The STD rate dropped a bit to 83 per thousand in 1947 but again rose to over 169 in late 1948, ranking the highest in the Far East Command. Commanding General Hodge attributed this to his soldiers' "woman hunting" activities as well as unit commanders' indifference to such misconduct. Moreover, according to the VD council of a division, troops tended to consider an STD "no worse than "Bad Cold," because penicillin will cure it in a short period of time" (HQ 24th Corps, February 1, 1948; April 14, 1948; GHQ FEC, December 2, 1948; HQ 6th Infantry Division, March 22, 1948). In other words, indoctrinating soldiers with continence proved ineffective.

To improve this situation, Hodge attempted to reintroduce punishment. He asked the Department of Army to regard hospitalization due to STDs as "not in duty"—i.e., to forfeit pay and veteran's benefits for the period. The Army Department did not accept his suggestion, since it was precluded by federal law. In September 1948, the VD Rehabilitation Training Center was closed (HQ USAFIK, February 18, 1948; June 3, 1949). Consequently, when it came to prostitution and STDs, the U.S. military had no measures to discipline its soldiers except for education and persuasion.

The U.S. military also lost control over Korean prostitutes. In February 1948, licensed prostitution was abolished by law, due to the Korean women's movement and the Korean Interim Assembly's support. Predicting this new abolitionist law to disperse formerly licensed prostitutes and therefore trigger an increase in STDs among its soldiers, the U.S. military

organized vice squads to crack down on prostitutes and procurers. Arrested Koreans were sent to provost courts instead of Korean courts and sentenced to fines or imprisonment. However, in August 1948 when the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e U.S. military lost jurisdiction over the Korean civilians. Therefore, it had to cease vice squad activities against prostitutes. Some commanders blamed that for a rapid spread of STDs in late 1948 (HQ 24th Corps, May 11, 1948; 1949; HQ 6th Infantry Division, September 2, 1948; HQ 80th Medical Group, September 22, 1948).

To summarize, the U.S. military in Korea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1945-48) combined two opposing options: Japanese colonial regulation and its own STD control. While continuing the registration and STD testing of "entertainment girls" on the one hand, it introduced American techniques such as off limits, contact tracing, vice squads, and free clinics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had difficulty in transplanting these new measures onto Korean soil. Off limits were often disregarded by its servicemen, contact tracing was carried out on a very limited scale, vice squads stopped operating due to the loss of jurisdiction, and clinics were severely inadequate even for treating apprehended prostitutes. It took a few more years to get these elements systematized in Korea and the result was noticeably gender specific, as the following sections will show.

Comfort Stations and Comfort Women

After the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48, the U.S. military withdrew from Korea leaving only 500 military advisors.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however, foreign troops including Americans returned. During the Korean War, the peak strength of U.N. forces from 21 countries was 340,000, of which about 90% were Americans. Prostitution resumed and STDs became more widespread, rising to 202 per 1,000

American troops in 1952. According to one official history of the U.S. Army, during the Korean War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Eighth U.S. Army in Korea (hereafter, EUSA) had difficulty in reaching a consensus regarding how to suppress STDs (Cowdrey, 1987: 249):

> Korean authorities followed traditional practice by informally licensing brothels and inspecting their inmates; the U.S. Army's policy of either breaking up houses of prostitution or putting them off limits, Koreans pointed out, merely drove women into the streets and put a premium on uncontrolled streetwalking. The Americans countered that actual Korean practice was extremely haphazard, with insufficient treatment of diseased women and poor contact tracing.

This licensed military brothel and its inmates were called *wianso* and *wianbu* in Korean respectively, which can be literally translated as "comfort station" and "comfort woman." A document produced in October 1951 by Korea's Ministry of Health reveals that it actually instructed its officials to license comfort stations for U.N. forces. The purpose of such facilities was to protect "ordinary Koreans' safety," and the service was offered only to U.N. forces. The Ministry of Health also stipulated details on the registration and STD testing of "comfort women," dancers, and waitresses. The term "comfort woman" was defined as a "woman who comfort and entertain foreign troops at a comfort station." All these women had to carry ID cards, i.e., health certificates to prove that they were regularly examined (The Ministry of Health, October 10, 1951).

The truth about comfort stations during the Korean War is still hidden, since only a few related documents have been discovered and, above all, no survivor has stepped forward to testify to her past. What is clear however,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followed tradition practice,"

inheriting from the imperial Japanese Army the terms comfort stations and comfort women, as well as the idea that it was necessary to provide safe sex to the military, in order to boost soldiers' morale, prevent STDs, and protect "ordinary" women from sexual assault.

What role then did the EUSAK play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comfort stations? According to the above quote, it appears that it obviously opposed the Korean government's idea of organizing comfort stations. However, a Korean government document shows a different picture. The Ministry of Health ordered its officials to license comfort stations "when the U.N. forces demand them." According to the document, the MPs of U.N. forces were also participating in checking health certificates of comfort women, dancers and waitresses (The Ministry of Health, October 10, 1951).

Moreover, part of this i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was translated into English by the UNCACK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which belonged to the EUSA) on the very next day. The cover letter of this translation emphasized: "the local authorities [i.e. the Korean government] are responsible for the program. We are advisors, only" (UNCACK, October 11, 1951). These documents imply that the U.S. military in Korea not only knew about comfort stations but also oversaw their operation in the form of consulting or supervising.

It is also noteworthy that while the U.S. military continued to rely on "off limits" as a means of preventing STDs, the purpose of that policy changed somewhat. The Far East Command described the effect of off limits as follows (HQ FEC, July 7, 1952):

a. (…) Experience clearly indicates that police authorities, properly approached, are highly cooperative in granting their assistance in combating prostitution, especially in conducting arresting patrols in areas or streets frequented by *street walkers,*

solicitors and pimps.

b. *A particularly powerful weapon exists in declaring large areas, and even entire towns, off limits*. This drastic measure should be taken only in very serious cases, *but civil authorities may be induced to greater cooperation* if they are aware that such action, with *its adverse effect on the local economy*, is a possibility [emphasis supplied].

This quote shows that the U.S. military utilized off limits as a "powerful weapon" to elicit civil authorities' cooperation. The main target of local government policing was specified as "street walkers" and their crews. Therefore, civil authorities could interpret this message as follows: if they failed to properly control streetwalkers, i.e., unregistered prostitutes, their local economy which incorporated regulated brothels would suffer. The Korean police took this statement to heart, concentrating their energy on arresting and registering "clandestine prostitutes" while issuing health certificates for registered prostitutes, dancers, and waitresses (UNCACK, July 8, 1951).

In this way, the Korean government, with the cooperation of the U.S. military, attempted to make prostitutes into a visible and controllable group by issuing them ID cards and restricting them to the licensed brothels called comfort stations. However, the U.S. military did not seem to be fully satisfied with the Korean government's STD control program. In the view of the EUSA, there was a "glaring weakness" in the STD policy during the war: "the failure to isolate infected individuals until non-infectious. Prostitutes return to work immediately after examination" (EUSA, 1951: 48). In order to overcome this shortcoming, facilities to isolate and treat infected prostitutes were considerably expanded not long after the war.

Healthy Prostitutes: A Necessary Condition of Healthy Soldiers

In July 1953, an armistice was signed. However, the U.S., motivated by the Cold War desire to contain communism, maintained a sizable presence in Korea. The number of American troops decreased from around 300,000 right after the war to 58,000 in 1961 and this level continued throughout the 1960s. With the U.S. military's long-term presence, so-called camptowns—business and amusement areas around the U.S. military bases—started to form. Prostitution prevailed there and STD control became more systematized.

During the war, the Korean government justified licensing comfort stations in the name of the state of emergency, even though prostitution was prohibited by law from 1948. After the ceasefire, however, the government found it difficult to justify violating the law any longer. It came up with an effective solution: licensing clubs instead of comfort stations, calling them "special restaurants for U.N. troops." Special restaurants were de facto brothels but with this euphemistic term, the government attempted to avoid the allegation of allowing prostitution. It permitted these restaurants only in camptowns, and Koreans, other than those catering to the U.S. military, were not allowed to enter the facilities. In this way, camptowns were established as a special zone for the benefit of American servicemen. They also functioned as a buffer zone between Korean civilians and foreign troops, designed to prevent any conflicts between them including sexual violence (Park JM, 2015).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d to regulate prostitution. As in the Korean War, the government classified prostitutes and other women who were deemed to render sexual services into three categories: comfort women, dancers, and waitresses. As such, the legal category of comfort women survived, while comfort stations disappeared. The government registered these women and issued health certificates to them. Its statistics

indicate that there were about 10,000 registered comfort women serving American troops annually between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the late 1980s. They were forced to submit to STD examinations twice a week. Considering that there were also unregistered prostitutes, the total number of prostitutes serving the military was much larger. In the late 1970s the term “comfort woman” was replaced by “special business woman” and the frequency of STD testing decreased to once a week (Park JM, 2015).

The U.S. military assisted the Korean government by providing “technical advice,” drugs, and other supplies. A conference convened by the EUSA shows how the U.S. military intervened i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In this conference designed to “define the objectives and procedures” for STD control in Ŭijŏngbu, one of major camptowns, Korean government officials were requested to report their policy. In the beginning of this conference, a Ministry of Health official stated as follows (EUSA, September 30, 1957).

> The Ministry considered that the best way to control venereal disease was to institute a system of periodic examinations of female entertainers and follow-up care of those with a VD. To accomplish this, it is necessary to have the cooperation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Participants agreed that “although prostitution was not recognized [i.e., it was criminalized], the female entertainers must be brought in and examined as they constitute a reservoir of VD.” The Chief of Police of Ŭijŏngbu was asked whether the police could control and bring to the clinics both registered and unregistered prostitutes. He answered that the police were already trying to do so but they needed the U.S. military’s cooperation to round up unregistered prostitutes. To this request, Colonel

Lancer from the EUSA emphasized that “the control of Korean civilians, including prostitutes, remained the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not the U.S. Army.” The Chief of Police responded that “the Korean Police would cooperate to the maximum in the VD control.” Considering that such conferences were held regularly during the following years, the EUSA showed that it was determined to monitor the enforcement of the STD policy. In this way, the U.S. military put pressure on the Korean government to control STDs thoroughly. Although the U.S. military stressed the Korean government’s primary responsibility for controlling Korean civilians, it also participated in rounding up suspected prostitutes. In June 1955, the EUSA assigned its military police to assist Korean police in locating and examining contacts with whom infected soldiers had sex. (EUSA, June 18, 1955). As mentioned, the contact tracing program was introduced in the postwar occupation period but conducted on a very small scale. This situation did not improve during the Korean War (EUSA, 1951: 7; Cowdrey, 1987: 249). By contrast, the U.S. military was able to conduct contact tracing more effectively after the war with the establishment of camptowns and the cooperation of the Korean police.

Many prostitutes who had served American troops testified that the joint rounding up of contacts by American MPs and the Korean police was carried out so mercilessly that its targets were terrorized. For instance, if an infected American soldier pointed out a woman alleging that he had sexual contact with her, she was immediately apprehended, taken to an STD clinic, and forcibly examin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she admitted to actually having sex with the soldier. If found to be infected, she was incarcerated at an STD detention center until fully cured. Korean police officers and public health officials also cracked down on prostitutes who were not issued health certificates or were not examined regularly. Arrested women were taken to police stations, punished with fines or

imprisonment, or locked up in STD detention centers. This checking of health certificates was called '*t'oböl*' in Korean, which means "subjugating (enemies)" (Kim YJ, 2005; Kim JJ, 2013: 244-245).

The STD detention centers were constructed from the mid-1960s in major camptowns, to quarantine and treat military prostitutes. Before the detention centers were established, infected prostitutes were treated at STD clinics. The U.S. military helped the Korean government build and operate both clinics and detention centers by providing construction materials, drugs, and other medical supplies. Forced treatment in the detention centers was painful, even causing death due to penicillin shock (Kim YJ, 2005; Kim JJ, 2013; Park JM, 2015).

During WWII, the U.S. government operated similar facilities in the U.S. called Rapid Treatment Centers, to quarantine and treat civilians infected with STDs, mostly women who were reported to have sex with soldiers by contact tracing. The last RTC in the U.S. was closed in 1953. Dr. Parascandola explained that the main reason was the introduction of penicillin, which treats STDs more quickly and easily on an outpatient basis (Parascandola, 2009: 457). In contrast, STD detention centers in Korea were established in the 1960s, even though penicillin and other antibiotics were widely available. This demonstrates that the top priority of both the U.S. military and the Korean government was effective STD control rather than women's human rights.

Moreover, the U.S. military utilized off limits as a "powerful weapon" to control prostitutes. In 1971, the Chief of Police of the Yongsan district of Seoul and the commander of the U.S. military in Yongsan jointly issued a flyer to the prostitutes. It stated as follows.

> Unfortunately, off limits was declared on your business area, because of a series of accidents in which some American soldiers were involved. The U.S. military inevitably took this action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the situation. (…) We believe that you have been offering the U.S. military the best service so far. But in some cases, you might have hurt some soldiers' feelings unintentionally. Let's reflect on such behavior and correct it! (…) Please keep in mind that the U.S. military is here to defend South Korea from North Korea's aggression and destruction. Not only for your business but also for national security, please cooperate with us in solving current problems. (…) We encourage you to serve all American servicemen equally.

It is not clear what caused the off limits. It appeared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racial issue, considering that in the early 1970s racial tension in the camptown was escalated influenced by civil rights movements in the U.S. and that the flyer requested prostitutes to serve all troops equally. At that time, clubs and bars in the camptowns were segregated according to the race, and those for African Americans were generally poor compared to those for white. Many black soldiers felt that they were discriminated by Korean club owners and prostitutes, which often gave rise to riots in camptowns. This flyer shows that the U.S. military, together with the Korean police, attempted to control Korean prostitutes' minds and conduct, forcing them to provide its soldiers safe pleasure free of racism as well as STDs.

In this way, after the war control over Korean prostitutes was considerably tightened and systematized. By contrast, it seems that the U.S. military did not expend much energy controlling its troops. It still emphasized continence as the best way of preventing STDs, while removing any discipline against infected soldiers unless they failed to report it (EUSA, June 18, 1955; EUSA, August 1, 1960). Mac E. Woods, the author of the booklet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showed how this message was received by soldiers (Woods, n.d.: 11-12):

> The Army Chaplain would give us Sex Moral Classes twice a month. It was a total waste of time. The main reason was, because all the soldiers new [*sic*] that our do-good Chaplain, was paying for the housing of two prostitutes in the local village. (…) Some of the soldiers followed him to the same Village, as soon as the Class was over. (…) The U.S. Government was very generous to the soldiers, they gave us free condoms. A large box of condoms were [*sic*] always located at the door of the barrack where you would sign out for your Off-Duty Pass. The Duty Officer would always advise the soldiers to put a handful of the condoms in their pocket, just in case.

Right after WWII, the War Department issued a circular that presented two main ways of preventing STDs: emphasizing "continence" and providing "knowledge and materials." However, it recognized the tension between the two and therefore stressed that offering sex hygiene education and prophylactic materials should "in no instance, leave the impression that the Army condones immorality" (War Department, January 31, 1947). Woods' testimony quoted above indicates that the U.S. military failed to alleviate that tension in Korea, causing widespread "immorality" among its soldiers.

In other words, American troops in Korea were enjoying unrestrained sexual freedom, and the STD policy of the U.S. military, if not encouraging it, at least did not hinder it. Both the U.S. military and the Korean government attempted to guarantee American soldiers' health by making Korean prostitutes healthy, i.e., free of STDs and racism.

Conclusion

미군 기지촌 '위안부' 운동과 당사자 '증언'의 의미:
포스트식민 서발턴의 사회적 형상화와 초국적 여성 연대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기지촌인권연대 국제심포지엄 발표문
2018년 5월 28일

1. 역사적 판결, 새로운 문을 열다!

지난 2018년 2월 8일, 한국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미군'위안부'들이 제기한 한국 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심 판결이 있었다. 당시 법정은 당사자들과 활동가들, 연구자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다. 법정의 공기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쌓였던 열망과 긴장감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마침내 재판장이 "성매매 중간 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를 조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해 모든 원고들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자, 여기저기서 안도와 환호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원고 측은 모두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어깨를 두드리고 두 손을 마주 잡았다. 나는 옆에 서 있던 김현선 전(前) 새움터 대표와 손을 꼭 잡았다. 같이 서 있던 경찰들이 제지를 해야 할 정도로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났다.

이 재판은 지난 2014년 6월 25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122명과 여성단체들인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에 의한 국가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원고인단은, 국가가 ①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 ② 불법행위 단속 면제와 불법행위 방치, ③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④ '애국교육' 등을 통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1인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원고인단은 같은 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의 기지촌 정책은 '미군 위안부 정책'이었다"며 "정부가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미군 기지촌 위안부'국가배상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1심 판결은 2년 6개월이 지난 2017년 1월 20일,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는 1, 2, 4주장을 배척하고, 제3주장 중 1977년 8월 19일 이전 강제 격리수용을 통한 성병치료행위는 위법행위로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일부 원고들(총 54명)에게 각 500만 원씩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한편 1977. 8. 19. 이후의 강제 격리수용행위는 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강제 격리수용과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크게 제한한 것이다. 원고 측 입장에서는 부분패소라 볼 수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공식 논평에서(2017년 1월 24일),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관한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1977년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 성병 감염인에 대한 격리 수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판결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국가의 강제적 성병관리가 위법 행위였음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국가가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를 했고, 성병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거나 미군에게 지목된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강제로 격리 수용해 치료한 정부의 조치가 위법했다"고 명시했다. 미군 기지촌 주변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개입과 관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국민의 불법 수용과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항은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피고인 정부 측은 그간의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가 5년이므로 원고 여성들의 권리는 이미 소멸됐다고 주

장해왔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법정은 인권침해적 범죄행위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오랫동안 억압된 사회적 타자들의 목소리에 부분적으로나마 응답함으로써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무수히 자행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연 것이다.[11]

그러나 원고와 피고 모두 각각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함으로써 2심이 진행되었고 1여년이 지난 2월, 본 판결이 내려졌던 것이다. 서울 고법 민사22부는 "국가의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을 상대로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와 위법한 강제 격리수용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원고들 전원(그간 5분이 돌아가셔서 2심 당시에는 117명만 생존해 계심)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위안부의 고정 수용, 외국군 상대 성매매에 있어서의 협조 당부**,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등의 행위가 **외국군의 사기 진작·앙양(昂揚)'이나 외화 획득을 위한 명목**으로 **국가가 "기지촌 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한 행위로 평가**"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위안부 등록제**나 지역재건부녀회 등의 자치조직을 통해 기지촌 위안부에게 **이른바 '애국교육'을 실시한 행위는 "기지촌 내 성매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했다**고 봤다. ③ 위법(違法)한 **성병치료 행위(강제 격리수용행위)**가 벌어진 이유 또한 **"위안부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등한시한 채 기지촌 내 성병의 근절에만 치중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④ 이러한 행위는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⑤ 설령,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기지촌 성매매를 시작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기화로 원고들의 성(性) 내지 인간적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또는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삼은 이상, **원고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⑥ 이상의 행위들은 **행위시점과 무관하게**, 헌법상 **"인권존중 의무에 위배**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라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보도 자료, 2018년 2월 8일).

이번 판결은 세 가지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11) 소송의 의미에 대해서는 경향신문 2017년 2월 13일자, 발표자의 칼럼을 참고할 것. "[정동칼럼] 미군 '위안부' 가 던지는 질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51550001&code=990308

기지촌 성매매 운영, 관리, 정당화 과정에 국가가 개입했고,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둘째, 공적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직접 피해경험**을 법정에서 진술하고, 이를 신뢰할만한 **증거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침묵 당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공적 장에서 들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물론, 한국 사회가 한 뼘이나마 성장하게 된 것은 이번 소송의 전 과정에서 가장 큰 의미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인권가치의 확인과 국가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법정은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이 규정한 체약당사국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자발/강제'라는 이분법을 넘어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구조**라는 사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입는 피해를 인정했다는 사실, 그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적 범죄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도 큰 함의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번 소송의 배경은 무엇일까? 발표자는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온 여성운동이 '여성의 관점'으로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원동력이었음을 환기하고자 한다. 2018년 '미투 운동'과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 집회, 홍대 '몰카 사건' 수사에 항의한 집회 등 뜨거운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적 현재는, 이미 배태되어 있는 한국진보여성운동과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오랜 투쟁과 변혁의 역사, 이를 통해 각성하고 성장한 시민들의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특히 필자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이 한국사회 전반의 시민의식 제고와 성평등한 인권감수성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이를 통해 한국시민들은 '개인의 선택' 혹은 '협소한 의미의 강제적 인신매매'라는 프레임의 허구를 깨닫고 성평등과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아직도 대규모로 자행된 성노예제와 집단 성폭력의 역사적 사실조차 부인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심지어 비난하는 일본 정부의 관점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낙후된 것인지 이번 대한민국 재판정은 여실히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속에 지난 30여년의 세월을 견뎌 온 미군 기지촌 운동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이번 소송과의 연관성 안에서 운동의 의미를 살펴보고, 포스트식민초국적 여성연대의 가능성과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2. 미군 기지촌 여성운동

위티어(Whittier 1995)는 사회운동이 근본적으로 집단적(collective) 현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기에 사회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상호작용, 일상과 집단적 정체성이라는 차원에서 활동가들의 헌신과 정체성, 세대(운동의 세대)를 살펴야 한다. 이때 세대 간 정치학과 집단적 정체성은 개별적 태도나 믿음, 자기 개념화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행동과 상호작용이 위치지어진 것(located in action and interaction)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6-17). 즉 운동의 아젠다를 사회로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과 이 과정에서 조우하는 주체들(사람-사람, 단체-단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운동 자체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미군 기지촌 '위안부' 제도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은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12] 1970년대 기생관광반대 운동을 주도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활동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할 것이나, 본격적인 운동의 발전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Lee, 2011). 사실상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성장한 여성들의 집단적 정체성-사회변혁을 향한 희망과 실천-은 특정 지역의 특정 여성들을 위한 운동에서 출발하여 보다 너른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저항과 변화로 나아가게 한 동력이 되었다.

미군 기지촌 '위안부' 운동의 공식적인 역사는 〈두레방〉으로부터 시작된다. 〈두레방〉은 1986년 3월 17일, 미군 기지촌으로 '악명' 높았던 의정부시 가능동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앞)에 개관했다. 1986년, 교회여성연합회 소속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가 미국장로교회에 두레방 프로젝트를 신청함과 동시에 문혜림 선교사 파송할 것을 요청하여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에 당시 민주화 인사로 저명했던 문동환 목사의 미국인 부인 문혜림 고문은 유복님 초대 관장과 함께 기지촌 성매매여성들과 국제결혼 여성들이 스스로를 해방하며,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선교적 사명으로 두레방을 개원하였다(정희진, 1999: 314).[13] 두레방은 한국말 '품앗이, 두레'에서 가져왔는데 여성들이 서로 돕는 곳, 쉼터라는 의미다. 영어로

12) 기지촌 내 수많은 여성들의 간헐적이나마 집단적 저항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나 이에 대한 논의는 지면상 생략한다.

13) 정희진, 1999.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 편, 서울: 한울아카데미, 300-358쪽.

는 My Sister's Place로 칭했다. 두레방의 당시 주요 사업은 상담, 영어교실, 공동식사, 탁아, 탈성매매를 위한 전업(轉業) 사업, 기지촌 활동 등이었다.

두레방은 비슷한 시기 개관한 〈막달레나집〉과 더불어 1986년 〈한소리회〉(하나의 소리, 한이 맺힌 소리)를 결성하여(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실무자 모임) 오늘날까지 반성매매운동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두레방에서 시작한 '기활'(대학생들의 기지촌 자원봉사 활동) 출신 활동가 김현선 (전)대표가 주도한 〈새움터〉('새싹이 움트는 곳'이라는 의미)는 동두천(흑인병사가 많아 '리틀 시카고'라 불림)에서 1996년 개관했다. 두 단체는 제국주의와 미군기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젠더차별과 연결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구조적 차원에서 기지촌 문제를 한국사회에 제기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한편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기독교 전도사 우순덕 원장의 주도로 설립된 〈햇살사회복지회〉는 2002년 평택 안정리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생존자들이 얼굴을 공개석상에서 증언을 하고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과 연대활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햇살사회복지회〉만의 꾸준한 활동, 이를 통해 구축된 따듯한 공동체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사자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햇살에 모여 오랫동안 꼭꼭 닫아 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자아를 재구성하는 힘을 얻어왔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햇살을 방문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안의 고통과 슬픔을 마주하게 되고 이를 넘어설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단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여성'이기 때문에 고통 받았던 경험들을 공유하며 연대감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이런 꾸준한 활동 덕분에 당사자들은 자기회복을 넘어 유사한 고통을 겪어 왔던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왔으며, 이번 기지촌 '위안부' 소송의 주요한 당사자가 될 수 있었다.

세 단체는 설립 목적과 활동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자조모임, 연극, 미술 치료, 노래 모임, 예배 모임, 공동 식사, 여행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여성들에게 안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기회를 부여해 왔다. 둘째, 미군 '위안부'들에게 부착되어 온 오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했다. "사회적 악", "더러운 양공주"라는 사회적 오명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이 사용한 "제국주의의 희생양," "미군 성폭력의 피해자" "우리 언니들"이라는 표현은 이들이 가부장제와 제국주의의 제도적 피해자라는 점과

‘우리’와 다름없는 (성폭력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지닌 여성들이라는 사실의 천명이었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 사회적으로 절대적 타자였던 여성들의 경험이 들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셋째,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피해자로 위치시킴으로써 미군 성매매가 반인권적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남성들의 위선적 성적 행동이 전혀 문제시되지 않고 성매매가 윤락행위였으며 성폭력이 정조에 관한 죄였을 당시 이들은 ‘위안부’들의 고통이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군대문화, 제국에 의한 여성의 성통제와 활용방식의 결과임을 사회적으로 환기했던 것이다.

넷째, 개별 여성들에게 성착취적 상황을 초래한 조건으로서 미군 기지촌 성매매를 인지한 이들의 활동은 사실상 성매매 상황이 여성들에게 폭력적이며 착취적인 것임을 알리는 것이었고, 이로써 반성매매활동이 미약한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산업=성착취라는 도식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1980-90년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중심의 변혁을 꾀한 이들의 집단적 활동이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오히려 역설적이다.

3. 말하는 ‘서발턴’의 가능성

기지촌은 크게 ‘제도로서의 기지촌,’ ‘문화로서의 기지촌’이 상존해 왔으며, 이를 통해 낙인화된 ‘양공주’가 존재해 왔다(이나영, 2007; 2008). 집단적이며 대규모 동원체계로서의 미군 주둔이 있었고, 식민지 시기 도입된 공창제도를 활용한 군 기지 성매매가 정당화되어 온 물적 토대가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수행이 있었기에 ‘제도’이다. 집단화, 성병 관리, 감찰과 감시,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각종 관리체계, 업주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의 정책적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전후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었던 절대적 가난,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업주들의 착취 구조라는 물리적 상황이 있었다.

‘문화로서의 기지촌’인 이유는 그러한 물리적 상황을 확대, 증폭, 지탱하기 위해 성차별적 남성문화, ‘미군과 몸을 섞어’ ‘혼혈’을 낳는 ‘몸 버린 여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생산하는 인종주의, 성별화된 섹슈얼리티가 주된 이데올로기로 작동했기 때문

이다. 경제적,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또한 숭미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미군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지만 이들과 관계하는 여성을 절대적 타자의 존재로 배치하고 상대적 열등감과 분노를 담아내야 하는 '그릇'으로 취급했던 한국 남성들의 못난 얼굴이 그러한 문화 뒤에 숨어 있었다. 이에 '양색시'들은 성적, 인종적, 계층적 타자로 이중, 삼중으로 낙인화되어 스스로 '부끄러움,' '수치심,' '죄' '슬픔과 한탄'을 배태한 존재로 침묵해야만 했다. 때론 '어쩔 수 없음'이 자기정당화의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의 차가운 현실은 그들을 역사 복원의 당당한 참고인, 목격자, 체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역사적 맥락과 권력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침묵은 맥락과 권력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결코 드러나거나 재현될 수 없다. 사회적 타자들은 말하되 듣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침묵하거나 침묵당하고, 지속적으로 침묵을 강요받기도 한다. 침묵은 때로는 존경심에서, 혹은 분노와 공포, 부끄러움에서 발생하며, 그리고 때로는 저항의 한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결국 이들이 말할 수 있게/없게 하는 조건은 바로 기지촌 제도와 문화를 구성하는데 공모해 온 우리 자신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기지촌 '위안부'의 체험은 단순히 개인적 불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현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이 교차하는 접합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망각한 자들의 (특권적) 위치성과 언어는 필연적으로 재현의 비윤리성을 배태한다. 동일성, 일관성, 투명성, 고정된 정체성에의 욕망은 관계성, 다중성, 불투명성, 유동성에 의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획이다. 구조에 대한 변혁, 스스로의 위치성에 대한 성찰 없이 잔여물이 남지 않는 재현, 왜곡 없는 번역이란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진정한' 억압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진실'된 피해자라는 믿음만큼이나, 타자 혹은 서발턴의 '이국적'인 '독특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읽는다는 전제 또한 낭만적 환상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모한티(Mohanty, 1991: 34)의 지적처럼, 그러한 '상상적 기록들(imaginative records)'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기록하고 받아들이며, 전파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일 것이다.

그러므로 기지촌 여성운동과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의미는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집단적 망각과 역사적 왜곡에서 '우리'를 일깨우려 했다는 점이다. 침묵의 매트릭스 안에서 꼭꼭 숨어 있지만 간간이 출몰하는 그녀들의 이야기. 부인과 부정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 증폭되는 트라우마. 그 여성들이 온 몸으로 체현해 왔던 그러나

인지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았던 식민지 시기부터 체현된 우리 모두의 트라우마를 직시하게 한다.

특히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과정에 참여하고 재판을 지켜보며, 재판정에 서서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하는 일은, 유령 같은 존재이거나 사회적으로 멸시 당하던 여성들에게 임파워먼트의 기회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말하는 주체'로 재구성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서발턴의 사회적 형상화는** 여성들에 대한 억압구조와 지배적 문화코드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탈식민지적 기획**이다. 최근 연이어 있었던 기지촌 당사자들의 생애 체험을 바탕으로 한 연극 〈일곱집매〉, 당사자들이 직접 무대에 오른 연극 〈숙자이야기〉와 뮤지컬 〈그대 있는 곳까지: 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주크박스 뮤지컬〉 등은, 여성들에 대한 탈식민지적 형상화를 통해 식민화된 우리의 (무)의식을 깨트리고 말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에 변혁을 가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대안적 재현과정이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고,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 당사자들의 정체성 변화와 깊은 연관을 지님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물론 경험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경험은 언제나 이미 하나의 해석인 동시에 해석의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다(Scott, 1988). 경험은 자명한 것이 아니며 주체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구성된다. 새롭게 해석되는 세계(관) 속에 어떤 경험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의미화되며, 또 다른 것들은 '망각'이라는 이름을 빌어 침잠하거나 무/의식 속에 부유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모순적 기억이 드러내는 '집단 여성'의 위치성에 대한 성찰일 것이다. 자신이 대한민국의 다른 여성들과 같은 '여성'이라는 사실이 잊어야 하고 지워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억압과 지배의 세밀한 그물을 포착해 낼 수 있는 인식론적 위치로 자리매김 되는 순간,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온 많은 차별과 폭력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가부장적 세계를 비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전희경, 2008: 47). 포스트식민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어떤 여성의 경험인들 모순적이지 않을까. 문제는 여성들의 경험이 왜 그렇게 구성되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지 질문하고 도전하는 일일 것이다.

4. 포스트식민 체제에 대한 저항과 초국적 여성연대

초국적 페미니즘은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경계에 대한 사고에서 출발하여,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행동, 경계를 해체하고자 하는 유기적 연대에 기반한다(이나영, 2010). 이때 초국적 페미니스트 운동이란 연결되는 경험에 주목하되 여성들 간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는 경계의 정치학에 기반한다. 여성들의 경험을 (재)생산하는 구조적인 조건들을 구체적인 삶의 맥락 안에서 읽어내려고 노력하면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군사주의에 기반한 전지구적 남성중심의 헤게모니의 확산을 우려하는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연대를 포괄한다(이나영 2009; 2010). 특히 이 글에서는 공식적인 식민지 종식 이후에도 지속되는 식민성과 식민 지배국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여성들 간 연대의 정치학으로서 초국적 페미니즘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지촌 여성운동은 포스트식민국가의 지정학적 힘의 역학 관계와 효과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경계를 넘어 여성들 간 연대의 정치학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초국적 페미니즘의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기지촌 성매매 문제는 외국군대의 주둔문제라는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의 협조와 지역 가부장의 동조를 통해 그 지속성을 담보 받았다는 점에서 애초에 초국적 역사·정치·사회의 문제다.

그러나 오랫동안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사회에서조차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생존 능력의 고취, 사회적 관심의 고양을 위해 노력하던 기지촌 여성활동가들은 친미보수주의자들과 남성중심적 민족주의자들의 몰성성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1995년 아시아, 태평양, 미국에 있는 NGO들을 연결하여 군사주의로 피해 받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생각하는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이른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 여성 네트워크(East-Asia-U.S. Women's Network Against US Militarism)"는 1997년 5월 오키나와에서 창립 회의(Founding Meeting)를 가졌으며, 당시 기지촌의 대표적인 반성매매 단체인 새움터(동두천 소재)의 대표인 김현선과 두레방의 김명분, 미군기지반대운동본부의 대표 정유진 등이 참여했다(애들러, 2000: 66-67). 2차 회의는 1998년 10월, "안전을 재정의한다 (Redefinding Security for Women and Children)"라는 제목으로 워싱턴에서, 3차 회의는 2000년 6월 오끼나와(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 푸에르코리코 참가)에서 열렸으며 이후, 국내단체들 간의 연대 모색된 2002년 제4차 한국회의, 2004년 필리핀, 2006년 미국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국제연대회의를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연대는 1993년 한국의 기지촌을 방문하여 혼혈아동들의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낀 아시아 혼혈계 미국 학자 마고 레이(Margo Okazawa Rey)의 추동에 힘은 바 크지만, 국경을 초월한 여러 나라, 다양한 지역의 민간운동단체들과 종교 단체, 여성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의 공유와 연대활동이 없었다면 출발은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연대의 경험은 한국의 기지촌 여성 활동가들에게 국제 관계에서 미군이 차지하는 정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국경을 초월한 연대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지역의 군대 성매매 문제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가 어떻게 군사주의와 인종차별주의, 국가통치와 안보의 문제와 연결되는지 국제관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 기지촌 활동가들은 국내 성매매관련 여성단체들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슈화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과 적극적 연대체도 모색해 왔다. 2012년, 〈기지촌여성인권연대〉의 현실화는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가 일제 식민지와 전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 지역 가부장 문화와 인신매매, 평화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제, 계층과 인종차별의 문제가 다층적으로 얽혀 있으며 역사적 맥락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풀어야 할 문제임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출범을 축하하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 (중략) **아직 우리사회는 이 기지촌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눈 돌리기를 불편해 하고,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듯합니다.** 남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 내가, 우리사회가 담당해야 할 책임이 크게 포함되어 있다면, 거북해하고, 기피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지촌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계속 말하고, 홍보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사회에 고발하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인 듯합니다....(중략)
>
> **기지촌여성인권연대의 출범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

니다. 우리사회에 기지촌여성들의 인권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내고, 사람들이 그 여성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지난 시기, 우리 한국사회가 걸어왔던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 여성들의 지금의 곤궁한 삶이 바로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중략)
기지촌여성 인권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기지와 군대로 인해 우리사회가, 생명들이 신음하고, 파괴당하는 현실에 눈뜨게 하고, 마침내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갈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통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활동하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14]

그는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눈감아 온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적시하고, 이는 바로 우리 사회,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 땅에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손잡고 활동할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미군 '위안부' 당사자 여성들의 의식 고양에 일본군'위안부' 당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저는 소외받고[아] 온 길원옥입니다. 일본 '위안부'로 있다가 해방 되서 한국에 왔는데, 고향에 간대니까 평양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온 게 인천입니다. 인천에 와서 그냥 너무 남루하니까 할 수 없어서 가지 못하고 옷이라도 그래도 한 벌 해 입고, 노자라도 해 가려니까 삼팔선이 딱 가로막혀서 못 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생활이 그랬으니까 부끄러워서 누가 알까봐 무섭고 참 숨어살다 시피 했는데, 정대협을 알아서, 거기에 나와 가지고 가만히 젊은이들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부끄러운 건데 내가 여태까지 착각하고 나만 부끄러운 건 줄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매주 수요일 날 집회도 나오고, 외국에서 오라면 외국에, 한국에서 오라면 한국에, 어디가서나 부끄러움 없이 있던

14) 윤미향,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31일 출범하는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출범 축사" , 수원시민신문 「뉴스365」, 2012년 8월 23일.
http://www.urisuwon.com/sub_read.html?uid=22497

그대로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지고 시방은 조금 **사람 사는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기지촌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 정말 세상에 내놓기가 부끄럽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부에서 시켰으면 정부가 부끄러운 거지,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끄러운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나서서 할 말 있으면 하고 정부한테도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세요.** 그냥 가만히 숨어서 있다고 우리 허물이 아닌 말로 안 밝혀지고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우리 허물은 허물대로 생전 내가 가지고 있다가 가는 거니까. 그러 생각하지 말고, 요구할 것 요구하고 달랠 건 달래고,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가만히 있다고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나서세요.** 나서서, 나 시방 80이라 온 몸이 그야말로 성한 데가 하나 없는 사람이 매주 수요일마다 외국도 머나먼 곳에 그 힘든 데를 왜 다닙니까. **세상에 밝히고 나같이 다시는 고생하지 말고 우리 후세대는 편안한 삶 살라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같이 손잡고 일합시다.**

위 내용은 2010년,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길원옥씨가 대한민국 평택의 미군 기지촌'위안부' 생존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의 전문이다.[15] 길원옥은 평생 "부끄러워" 감추려 했던 자신의 경험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되었음 적시하면서, 자신이 변화하게 된 과정을 운동의 힘과 연결시킨다. 피해자들이 경험을 발화하고 정체성이 변화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그들의 경험을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 운동으로 조직화했던 여성단체와 활동가들의 연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안고 가야 할 육체적, 정신적 상흔과 별개로 피해의 책임을 묻는 작업을 당사자들이 중단해선 안 된다고 요구한다. 그 이유는 역사적 과오를 직시할 때, 보다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길원옥은 미래세대의 평화로운 삶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들을 위해서라도 미군 기지촌 '위안부' 생존자들의 적극적 활동과 연대를 요청한다. 당당히 나서고 피해 사실을 밝히는 일은 개인의 한 맺힌 응어리를 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후세대가 입을지 모르는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길원

15) "길원옥 할머니가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https://www.youtube.com/watch?v=isD19k56y_M&index=99&list=PL3YRufVCDbf-u7yFVCmgrYwREM2DPxzSK

옥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이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활동가로서, 미군 기지촌'위안부' 생존자들에게 말을 건네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미군 기지촌의 여성들은 용기를 얻고 희망을 보았으며, 화답하듯 직접 정대협의 수요시위와 '2015 한일합의' 반대 시위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등 활동을 함께 해 왔다. 그런 과정은 당사자들이 언론 매체뿐 아니라 국내외 각종 증언집회에서 스스로의 경험을 드러내며,[16] 기지촌 운영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당당한 주체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김복동씨의 기부로 제정된 〈나비평화상〉의 첫 번째(2016년) 수상자로 〈두레방〉, 〈새움터〉, 〈햇살사회복지회〉가 선정되었다는 점은 오랫동안 기지촌 여성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단체와 활동가들, 피해 당사자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함이며, 또 다른 연대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미군 기지촌 '위안부' 운동은 역사에 대한 거대한 질문에서부터 포스트식민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 개인의 윤리적 위치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다중적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1년 12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집단적 망각에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을 깨어나게 하였듯, 기지촌 '위안부'들의 이야기도 한국 사회,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 세계의 남성중심적 역사 속에서 잊혀져야만 했던 역사를 다시 일깨울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숨겨진 진실'들'을 대면하게 되고 그 진실의 그물망 안에 있는 수많은 '우리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다중적 위치들이 만나는 그 장 안에서 '나' 자신이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꿈꾸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다. 폭력적이고 비자발적인 상황 속에서 망각 상태로 내 몰린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곧 왜곡되었던 '나' 자신의 인식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일이리라.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들과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 간의 연대를 기억하는 일은 '나'를 일깨우고 변화시키며 종국에는 부정의한 구조를 바꾸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16) "미군 '기지촌 할머니들' 시카고 방문." 2006년 10월 4일. https://www.youtube.com/watch?v=Fq0tOp15JLo&t=30s&list=PL3YRufVCDbf-u7yFVCmgrYwREM2DPxzSK&index=100

"국가란 무엇인가: 미군 위안부의 진실." KBS 〈추적 60분〉. 2017년 6월 7일. https://www.youtube.com/watch?v=J8OtIJ9-kuE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심포지엄]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역사와 소송의 의미

□ 일시: 5월 28일(월) 오후 2시~6시
□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2연수실
□ 주최: 기지촌여성인권연대